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다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2015.8.26(수) 14:00~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회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부 조사결과 : 북한의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 14:10~15:40 발표 1 시장화와 소득 · 세대 · 지역 분화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표 2 주민생활과 정보화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발표 3 주민의 유동성 · 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표 4 주민의 통일 · 주변국 인식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제2부 패널토론 : 북한 사회 변화의 주체는?

- 16:00~18:00 사 회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원장)
- 패 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천식 (통일평화연구원 특임연구원)
윤지현 (서울대 교수)
정영철 (서강대 교수)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목 차

조사연구 개요	09
발표 1 : 시장화와 소득 · 세대 · 지역 분화	19
시장화와 소득 · 세대 · 지역 분화 (요약)	62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2 : 주민생활과 정보화	69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요약)	85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3 : 주민의 유동성 · 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91
주민의 유동성 · 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요약)	107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발표 4 : 주민의 통일 · 주변국 인식	115
주민의 통일 · 주변국 인식 (요약)	126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 조사연구 개요

2015년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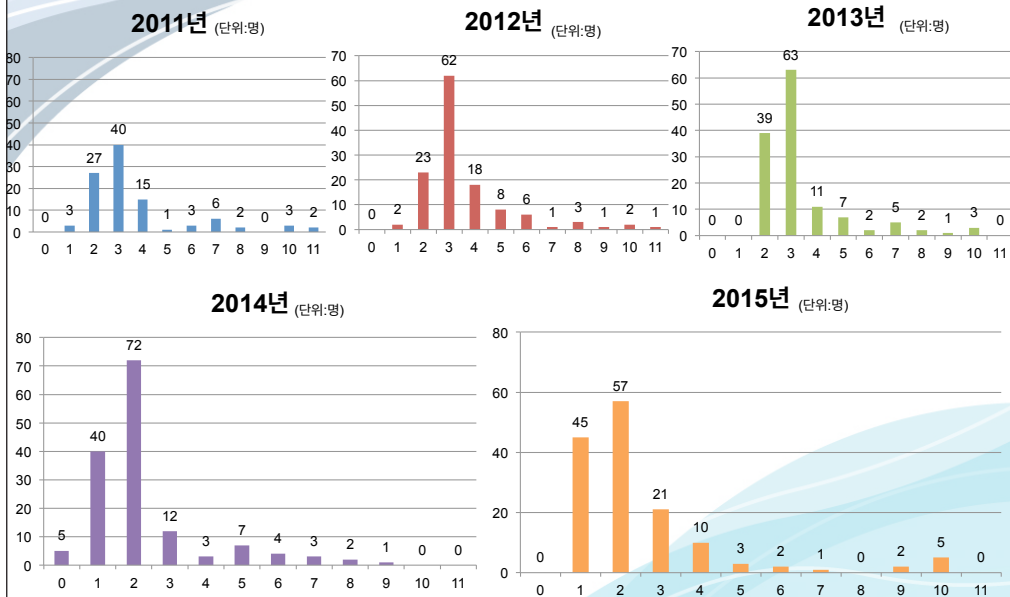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5/28-6/30	5/22-7/6
탈북연도					
2010	104				
2011	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합계	105	127	133	149	146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의식	○	○	○	○	○
대남의식	○	○	○	○	○
북한실태변화	○	○	○	○	○
남한적응실태	○	○	○	○	○
주변국인식	--	○	○	○	○

성별, 연령별 분포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13	19	22	21	24	22	17	31	16	29
30대	12	17	11	12	17	12	13	15	20	25
40대	6	10	10	21	11	27	12	27	13	24
50대	1	14	6	11	7	9	6	13	6	10
60대 이상	4	9	7	6	0	4	2	13	2	1
합계(N)	36	69	56	71	59	74	50	99	57	89

- 2013/2014 조사의 응답자 중 10대는 각각 3명이었으며, 2015년 조사의 응답자 중 10대는 1명이었음. 10대는 20대에 포함됨.
- 20대 30.8%, 30대 30.8%, 40대 25.3%, 50대 16%, 60대 이상 3%
- 30대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과거 조사보다 높음.
- 남성은 39% 여성은 61% 비율임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양	0	0	1	3	3
남포	0	1	0	2	1
평안남도	5	0	2	4	3
평안북도	0	1	6	0	3
함경남도	4	14	11	9	5
함경북도	55	65	51	53	64
자강도				1	
양강도	40	39	58	72	60
황해남도	0	3	0	1	1
황해북도	1	3	1	2	4
강원도	0	1	2	2	2
합계(N)	105	127	132	149	146

43.8%

41.1%

교육수준별 응답자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학교	11.4	10.4	16.5	13.6	19.9
전문학교	21.0	18.4	11.3	21.8	16.4
고등중학교	66.7	66.4	71.4	62.6	61.0
인민학교	1.0	3.2	0.0	2.0	2.1
무학	0.0	1.6	0.8	0	0.7
합계(N)	105	125	133	147	146

- 전문학교 이상 북한학력자: 36.3%
- 고등중학교 북한학력자: 61%

직업별 응답자 분포

단위:%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노동자	29.3	37.6	31.6	31.1	26.2
농민	9.1	8.8	3.8	7.4	4.8
사무원	13.1	4.8	9.8	12.2	9.0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8.1	7.2	8.3	3.4	5.5
학생	7.1	6.4	6.0	7.4	4.8
군인	6.1	4.0	4.5	4.7	4.8
외화벌이군	1.0	2.4	2.3	0.0	4.1
장사	11.1	11.2	13.5	4.7	20.7
주부	11.1	11.2	16.5	18.9	11.7
무직 및 기타	4.0	6.4	3.8	10.1	8.3
합계(N)	99	125	133	148	14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당원별 응답자 분포

단위:%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원	9.9	14.4	14.3	13.5	17.9
후보당원	1.0	0.0	0.0	0.7	0.7
비당원	89.1	85.6	85.7	85.8	81.4
합계(N)	101	125	133	147	14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식 월급 수준

단위:명

공식월급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0원	27	32	69	91	80	54.8%
1000원 미만	7	10	2	13	7	
5000원 미만	37	46	49	39	52	35.6%
1만원 미만	2	4	5	2	1	
10만원 미만	6	9	0	3	4	
50만원 미만	2	5	4	0	0	
100만원 미만	1	0	2	0	1	
100만원 이상	0	0	0	1	1	
무응답	23	21	2			
합계(N)	105	127	133	149	146	

비공식 수입

단위:명

비공식 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0원	18	21	32	33	24	
1000원 미만	6	0	3	4	0	
5000원 미만	7	2	0	2	0	
1만원 미만	2	2	3	2	0	
10만원 미만	18	25	9	26	9	
50만원 미만	19	44	52	43	43	29.5%
100만원 미만	6	8	10	17	36	24.7%
100만원 이상	6	7	19	15	34	23.3%
무응답	23	18	2	2		
합계(N)	105	127	133	144	146	

장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분포

단위: %

장사경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있다	71.3	69.8	74.4	69.8	76.7
없다	28.7	30.2	25.6	30.2	23.3
합계(N)	101	126	133	149	146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	19.7	22.6	24.8	19.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9	59.1	57.1	57.8	55.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4	21.3	20.3	17.5	25.5
합계(N)	102	127	133	149	145

남한친척의 유무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없다	40.2	37.8	34.6	30.9	41.8
있다	59.8	62.2	65.4	69.1	58.2
합계(N)	102	127	133	149	146

남한 내 친척이 있다는 응답률 줄고, 없다는 응답률 증가함.

결혼상태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결혼상태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미혼	55.6	46.0	37.6	30.9	39.3
결혼 (동거포함)	44.4	44.4	53.4	55.0	42.8
이혼	0.0	9.5	9.0	14.9	17.9
합계(N)	99	126	133	149	146

이혼을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이 높아지고 있음

자녀의 수에 따른 응답자 분포

단위:%

자녀의 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0명	29.6	30.4	38.4	34.2	39.7
1명	35.8	34.3	32.3	27.5	35.6
2명	22.2	24.5	24.1	29.5	21.2
3명	7.4	8.8	4.5	6.7	2.1
4명	4.9	2.0	0.8	1.3	1.4
5명				0.7	
합계(N)	81	102	133	149	146

감사합니다!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 발표 1

시장화와 소득 · 세대 · 지역 분화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시장화와 소득 · 연령대 · 지역 분화

1

목 차

1. 경제 시장화-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2. 사회의 분화-소득 · 연령대 · 지역

경제시장화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88	38	126
	69.8%	30.2%	100.0%
2013년	99	34	133
	74.4%	25.6%	100.0%
2014년	104	45	149
	69.8%	30.2%	100.0%
2015년	112	34	146
	76.7%	23.3%	100.0%
전체	403	151	554
	72.7%	27.3%	100.0%

장사경험 비중이 2014년 조사보다 6.9% 증가
전체적으로 장사경험 비중이 70% 초반 대를 유지(2014년 71.6%)

전업 장사 비중

구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외화 별이	장사	가정 부인	무직. 기타	전체
2012년	47	11	6	9	8	5	3	14	14	8	125
	37.6%	8.8%	4.8%	7.2%	6.4%	4.0%	2.4%	11.2%	11.2%	6.4%	100.0%
2013년	42	5	13	11	8	6	3	18	22	5	133
	31.6%	3.8%	9.8%	8.3%	6.0%	4.5%	2.3%	13.5%	16.5%	3.8%	100.0%
2014년	46	11	18	5	11	7	0	7	28	15	148
	31.1%	7.4%	12.2%	3.4%	7.4%	4.7%	0.0%	4.7%	18.9%	10.1%	100.0%
2015년	38	7	13	8	7	7	6	30	17	12	145
	26.2%	4.8%	9.0%	5.5%	4.8%	4.8%	4.1%	20.7%	11.7%	8.3%	100.0%
전체	173	34	50	33	34	25	12	69	81	40	551
	31.4%	6.2%	9.1%	6.0%	6.2%	4.5%	2.2%	12.5%	14.7%	7.3%	100.0%

장사를 전업으로 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적으로 12.5%를 차지
(전업 장사 구성: 노동자 25.0%, 가정부인 52.8%, 무직.기타 13.9%)

성별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남자	164	92	256
	64.1%	35.9%	100.0%
여자	311	88	399
	77.9%	22.1%	100.0%
전체	475	180	655
	72.5%	27.5%	100.0%

여성이 남성보다 13.8%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의 장사활동이 활발

공식 직업별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노동자	72	23	95
	75.8%	24.2%	100.0%
농민	10	11	21
	47.6%	52.4%	100.0%
사무원	33	12	45
	73.3%	26.7%	100.0%
피부양자	2	1	3
	66.7%	33.3%	100.0%
학생	9	11	20
	45.0%	55.0%	100.0%
군인	6	7	13
	46.2%	53.8%	100.0%
가정부인	54	6	60
	90.0%	10.0%	100.0%
무직.기타	26	7	33
	78.8%	21.2%	100.0%
전체	212	78	290
	73.1%	26.9%	100.0%

가정부인 > 무직.기타 > 노동자 > 사무원 > 피부양자 > 농민 > 군인 > 학생

교육수준별 장사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대학교	58	26	84
	69.0%	31.0%	100.0%
전문학교	71	23	94
	75.5%	24.5%	100.0%
고등중학교	266	92	358
	74.3%	25.7%	100.0%
인민학교	3	7	10
	30.0%	70.0%	100.0%
무학	2	2	4
	50.0%	50.0%	100.0%
전체	400	150	550
	72.7%	27.3%	100.0%

대학 학력자 중 장사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5	8	13
	38.5%	61.5%	100.0%
2013년	15	7	22
	68.2%	31.8%	100.0%
2014년	15	5	20
	75.0%	25.0%	100.0%
2015년	23	6	29
	79.3%	20.7%	100.0%
전체	58	26	84
	69.0%	31.0%	100.0%

전문학교 > 고등중학교 > 대학교 순으로 장사경험이 많음
대학교 학력자들의 장사경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당원 여부별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당원	64	29	93
	68.8%	31.2%	100.0%
후보당원	1	2	3
	33.3%	66.7%	100.0%
비당원	404	147	551
	73.3%	26.7%	100.0%
전체	469	178	647
	72.5%	27.5%	100.0%

비당원의 장사경험이 당원보다 4.5% 높지만
장사경험에서 당원여부는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구분	소매 장사	개인 편의봉사	개인 (임)가공	식당, 상점 임대 운영	퇴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장사	샅벌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2012년	39	5	2	2	11	11	7	4	1	24	106
	36.8%	4.7%	1.9%	1.9%	10.4%	10.4%	6.6%	3.8%	.9%	22.6%	100.0%
2013년	45	7	5	0	7	14	6	12	2	19	117
	38.5%	6.0%	4.3%	0.0%	6.0%	12.0%	5.1%	10.3%	1.7%	16.2%	100.0%
2014년	40	7	4	4	20	8	4	10	2	27	126
	31.7%	5.6%	3.2%	3.2%	15.9%	6.3%	3.2%	7.9%	1.6%	21.4%	100.0%
2015년	35	0	3	6	17	20	10	3	0	34	128
	27.3%	0.0%	2.3%	4.7%	13.3%	15.6%	7.8%	2.3%	0.0%	26.6%	100.0%
전체	159	19	14	12	55	53	27	29	5	104	477
	33.3%	4.0%	2.9%	2.5%	11.5%	11.1%	5.7%	6.1%	1.0%	21.8%	100.0%

2014년 조사에 비해 외화벌이 비중이 9.3% 증가
전체적으로 소매장사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2012년	16	6	29	16	36	103
	15.5%	5.8%	28.2%	15.5%	35.0%	100.0%
2013년	9	9	20	19	62	119
	7.6%	7.6%	16.8%	16.0%	52.1%	100.0%
2014년	10	6	18	23	66	123
	8.1%	4.9%	14.6%	18.7%	53.7%	100.0%
2015년	12	9	27	25	56	129
	9.3%	7.0%	20.9%	19.4%	43.4%	100.0%
전체	47	30	94	83	220	474
	9.9%	6.3%	19.8%	17.5%	46.4%	100.0%

2014년 조사에 비해 5년 이상 종사자가 10.3% 감소
 전체적으로 5년 이상 종사가 46.4%, 1년-3년 미만이 약 20% 차지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상품.원부자재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나라들	전체
2012년	20	65	4	0	0	89
	22.5%	73.0%	4.5%	0.0%	0.0%	100.0%
2013년	42	74	2	1	0	119
	35.3%	62.2%	1.7%	.8%	0.0%	100.0%
2014년	34	75	3	1	1	114
	29.8%	65.8%	2.6%	.9%	.9%	100.0%
2015년	41	71	6	1	1	120
	34.2%	59.2%	5.0%	.8%	.8%	100.0%
전체	137	285	15	3	2	442
	31.0%	64.5%	3.4%	.7%	.5%	100.0%

2014년 조사에 비해 북한산이 4.4% 증가, 중국산이 6.6% 감소
 전체적으로 중국산 64.5%, 북한산 31.0% / 남한산은 3.4%로 미미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상품,원부자재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소매장사	42 27.3%	111 72.1%	1 .6%	0 0.0%	0 0.0%	154 100.0%
개인 편의봉사	4 21.1%	14 73.7%	1 5.3%	0 0.0%	0 0.0%	19 100.0%
개인(임)가공	2 15.4%	11 84.6%	0 0.0%	0 0.0%	0 0.0%	13 100.0%
식당, 상점 임대 운영	2 18.2%	8 72.7%	1 9.1%	0 0.0%	0 0.0%	11 100.0%
되거리 장사	18 36.0%	30 60.0%	2 4.0%	0 0.0%	0 0.0%	50 100.0%
외화별이	24 46.2%	27 51.9%	0 0.0%	1 1.9%	0 0.0%	52 100.0%
돈장사	2 7.7%	17 65.4%	7 26.9%	0 0.0%	0 0.0%	26 100.0%
샅별이	9 34.6%	16 61.5%	0 0.0%	0 0.0%	1 3.8%	26 100.0%
해외 파견	1 20.0%	4 80.0%	0 0.0%	0 0.0%	0 0.0%	5 100.0%
기타	30 37.5%	44 55.0%	3 3.8%	2 2.5%	1 1.3%	80 100.0%
전체	134 30.7%	282 64.7%	15 3.4%	3 0.7%	2 0.5%	436 100.0%

중국산: 개인(임)가공>편의봉사>소매장사 순

북한산: 외화별이>되거리장사 순 / 돈장사: 중국.남한 자본 92.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년	6 6.1%	47 47.5%	16 16.2%	6 6.1%	7 7.1%	7 7.1%	10 10.1%	0 0.0%	99 100.0%
2013년	10 8.4%	62 52.1%	13 10.9%	4 3.4%	18 15.1%	10 8.4%	2 1.7%	0 0.0%	119 100.0%
2014년	6 4.9%	32 26.0%	7 5.7%	6 4.9%	10 8.1%	16 13.0%	38 30.9%	8 6.5%	123 100.0%
2015년	3 2.4%	19 15.0%	14 11.0%	5 3.9%	6 4.7%	10 7.9%	67 52.8%	3 2.4%	127 100.0%
전체	25 5.3%	160 34.2%	50 10.7%	21 4.5%	41 8.8%	43 9.2%	117 25.0%	11 2.4%	468 100.0%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나(34.2%) 지속적으로 감소
단속,뇌물제공이 두 번째로 큰 문제이며(25.0%), 지속적으로 증가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2순위)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년	0	2	8	2	7	7	47	3	76
	0.0%	2.6%	10.5%	2.6%	9.2%	9.2%	61.8%	3.9%	100.0%
2013년	0	1	11	8	13	12	68	4	117
	0.0%	.9%	9.4%	6.8%	11.1%	10.3%	58.1%	3.4%	100.0%
2014년	4	14	17	8	17	12	32	3	107
	3.7%	13.1%	15.9%	7.5%	15.9%	11.2%	29.9%	2.8%	100.0%
2015년	5	26	16	12	22	12	24	5	122
	4.1%	21.3%	13.1%	9.8%	18.0%	9.8%	19.7%	4.1%	100.0%
전체	9	43	52	30	59	43	171	15	422
	2.1%	10.2%	12.3%	7.1%	14.0%	10.2%	40.5%	3.6%	100.0%

단속.뇌물 이외에 도로.철도.전기 사정과 상품.원자재 확보문제 상존

전체수입 중 뇌물 비중

구분	10% 이하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50%이상	전혀 없음	전체
2012년	30	20	23	12	6	14	17	122
	24.6%	16.4%	18.9%	9.8%	4.9%	11.5%	13.9%	100.0%
2013년	35	24	23	13	14	9	13	131
	26.7%	18.3%	17.6%	9.9%	10.7%	6.9%	9.9%	100.0%
2014년	26	30	33	14	7	15	24	149
	17.4%	20.1%	22.1%	9.4%	4.7%	10.1%	16.1%	100.0%
2015년	36	28	17	13	9	14	27	144
	25.0%	19.4%	11.8%	9.0%	6.3%	9.7%	18.8%	100.0%
전체	127	102	96	52	36	52	81	546
	23.3%	18.7%	17.6%	9.5%	6.6%	9.5%	14.8%	100.0%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이나 전체적으로 85% 정도가 다소 간의 뇌물을 제공, 부패 문제가 심각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타인고용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25	75	100
	25.0%	75.0%	100.0%
2013년	35	84	119
	29.4%	70.6%	100.0%
2014년	29	94	123
	23.6%	76.4%	100.0%
2015년	51	95	146
	34.9%	65.1%	100.0%
전체	140	348	488
	28.7%	71.3%	100.0%

2014년 조사에 비해 고용 비율이 11.3% 증가
 전체적으로 고용 비율이 2012년 조사 이후 증가하지만, 30%를 하회
 주민들의 저저 경제활동이 개인 자영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주된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 규모

구분	5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2012년	14	2	3	0	2	21
	66.7%	9.5%	14.3%	0.0%	9.5%	100.0%
2013년	20	8	3	0	4	35
	57.1%	22.9%	8.6%	0.0%	11.4%	100.0%
2014년	17	2	4	1	3	27
	63.0%	7.4%	14.8%	3.7%	11.1%	100.0%
2015년	37	6	2	1	6	52
	71.2%	11.5%	3.8%	1.9%	11.5%	100.0%
전체	88	18	12	2	15	135
	65.2%	13.3%	8.9%	1.5%	11.1%	100.0%

2014년 조사에 비해 5명 미만이 8.2% 증가, 10-14명이 11.0% 감소
 전체적으로 20명 이상이 10% 초반 대에 정체된 양상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타인고용 기간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2012년	4	3	3	8	0	18
	22.2%	16.7%	16.7%	44.4%	0.0%	100.0%
2013년	8	4	4	10	8	34
	23.5%	11.8%	11.8%	29.4%	23.5%	100.0%
2014년	5	7	0	6	7	25
	20.0%	28.0%	0.0%	24.0%	28.0%	100.0%
2015년	2	7	15	10	12	46
	4.3%	15.2%	32.6%	21.7%	26.1%	100.0%
전체	19	21	22	34	27	123
	15.4%	17.1%	17.9%	27.6%	22.0%	100.0%

2014년 조사 대비 1년 미만과 1~3개월 미만이 각각 15.7%와 12.8% 감소 반면 3~6개월 미만은 32.6% 증가
 전체적으로 1년 이상이 20% 중반 대에 정체, 사업의 확장성이 의문시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12년	33	14	38	5	9	2	8	8	117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년	37	18	48	14	5	5	5	1	133
	27.8%	13.5%	36.1%	10.5%	3.8%	3.8%	3.8%	.8%	100.0%
2014년	35	19	36	14	10	8	8	17	147
	23.8%	12.9%	24.5%	9.5%	6.8%	5.4%	5.4%	11.6%	100.0%
2015년	26	20	25	12	9	10	21	23	146
	17.8%	13.7%	17.1%	8.2%	6.2%	6.8%	14.4%	15.8%	100.0%
전체	131	71	147	45	33	25	42	49	543
	24.1%	13.1%	27.1%	8.3%	6.1%	4.6%	7.7%	9.0%	100.0%

2014년 조사 대비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이 9.0% 증가
 전체적으로 소토지와 시장 매대가 감소 추세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등 생산설비 사유화 인식 증가 주목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2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12년	16	28	13	14	8	10	13	4	106
	15.1%	26.4%	12.3%	13.2%	7.5%	9.4%	12.3%	3.8%	100.0%
2013년	14	41	32	23	3	4	9	7	133
	10.5%	30.8%	24.1%	17.3%	2.3%	3.0%	6.8%	5.3%	100.0%
2014년	17	29	18	16	12	16	19	6	133
	12.8%	21.8%	13.5%	12.0%	9.0%	12.0%	14.3%	4.5%	100.0%
2015년	11	14	21	21	11	19	17	5	119
	9.2%	11.8%	17.6%	17.6%	9.2%	16.0%	14.3%	4.2%	100.0%
전체	58	112	84	74	34	49	58	22	491
	11.8%	22.8%	17.1%	15.1%	6.9%	10.0%	11.8%	4.5%	100.0%

전체적으로 살림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과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생산설비가 증가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대학교	21	11	14	6	10	7	7	8	84
	25.0%	13.1%	16.7%	7.1%	11.9%	8.3%	8.3%	9.5%	100.0%
전문학교	22	13	28	10	3	1	8	8	93
	23.7%	14.0%	30.1%	10.8%	3.2%	1.1%	8.6%	8.6%	100.0%
고등중학교	80	47	101	29	19	17	27	28	348
	23.0%	13.5%	29.0%	8.3%	5.5%	4.9%	7.8%	8.0%	100.0%
인민학교	4	0	2	0	0	0	0	4	10
	40.0%	0.0%	20.0%	0.0%	0.0%	0.0%	0.0%	40.0%	100.0%
무학	2	0	1	0	0	0	0	1	4
	50.0%	0.0%	25.0%	0.0%	0.0%	0.0%	0.0%	25.0%	100.0%
전체	129	71	146	45	32	25	42	49	539
	23.9%	13.2%	27.1%	8.3%	5.9%	4.6%	7.8%	9.1%	100.0%

대학교 학력 수준에서 농장분조 경작지나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등
토지나 소규모 생산설비에 대한 사유화 인식이 미미하지만 높은 수준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 1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전체
2014년	3	5	11	18	1	111	149
	2.0%	3.4%	7.4%	12.1%	0.7%	74.5%	100.0%
2015년	3	3	10	22	4	102	144
	2.1%	2.1%	6.9%	15.3%	2.8%	70.8%	100.0%
전체	6	8	21	40	5	213	293
	2.0%	2.7%	7.2%	13.7%	1.7%	72.7%	100.0%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책임소재) 2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2014년	1	19	44	58	12	9	2	145
	0.7%	13.1%	30.3%	40.0%	8.3%	6.2%	1.4%	100.0%
2015년	1	15	32	75	7	6	6	142
	0.7%	10.6%	22.5%	52.8%	4.9%	4.2%	4.2%	100.0%
전체	2	34	76	133	19	15	8	287
	0.7%	11.8%	26.5%	46.3%	6.6%	5.2%	2.8%	100.0%

1순위에서 최고영도자가 72.7%로 절대 다수를 차지
 2순위에서 당지도부가 2014년보다 12.8% 증가, 내각은 7.8% 감소
 군부 지적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미미하거나 낮은 비중을 차지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1순위)-당원 여부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전체
당원	0	1	1	4	2	38	46
	0.0%	2.2%	2.2%	8.7%	4.3%	82.6%	100.0%
후보당원	0	0	0	0	0	2	2
	0.0%	0.0%	0.0%	0.0%	0.0%	100.0%	100.0%
비당원	6	7	20	36	3	171	243
	2.5%	2.9%	8.2%	14.8%	1.2%	70.4%	100.0%
전체	6	8	21	40	5	211	291
	2.1%	2.7%	7.2%	13.7%	1.7%	72.5%	100.0%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2순위)-당원 여부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당원	1	4	7	25	3	4	0	44
	2.3%	9.1%	15.9%	56.8%	6.8%	9.1%	0.0%	100.0%
후보당원	0	1	0	1	0	0	0	2
	0.0%	50.0%	0.0%	50.0%	0.0%	0.0%	0.0%	100.0%
비당원	1	29	67	107	16	11	8	239
	0.4%	12.1%	28.0%	44.8%	6.7%	4.6%	3.3%	100.0%
전체	2	34	74	133	19	15	8	285
	0.7%	11.9%	26.0%	46.7%	6.7%	5.3%	2.8%	100.0%

1순위에서 당원의 최고영도자 지적이 비당원보다 12.2% 높음
 2순위에서 당원의 당지도부 지적이 비당원보다 12.0% 높은 반면
 당원의 내각 지적은 비당원보다 12.1% 낮음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9	8	40	40	48	4	149
	6.0%	5.4%	26.8%	26.8%	32.2%	2.7%	100.0%
2015년	2	8	37	55	44	0	146
	1.4%	5.5%	25.3%	37.7%	30.1%	0.0%	100.0%
전체	11	16	77	95	92	4	295
	3.7%	5.4%	26.1%	32.2%	31.2%	1.4%	100.0%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2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0	14	30	70	27	3	144
	0.0%	9.7%	20.8%	48.6%	18.8%	2.1%	100.0%
2015년	1	22	29	63	27	2	144
	0.7%	15.3%	20.1%	43.8%	18.8%	1.4%	100.0%
전체	1	36	59	133	54	5	288
	0.3%	12.5%	20.5%	46.2%	18.8%	1.7%	100.0%

2014년 조사 대비, 1순위에서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가 10.9% 증가
 사상성 강화는 지난해보다 감소(-4.6%)
 2순위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5.6% 증가

교육수준별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대학교	0	4	14	15	16	0	49
	0.0%	8.2%	28.6%	30.6%	32.7%	0.0%	100.0%
전문학교	3	1	22	12	15	3	56
	5.4%	1.8%	39.3%	21.4%	26.8%	5.4%	100.0%
고등중학교	7	11	40	64	58	1	181
	3.9%	6.1%	22.1%	35.4%	32.0%	.6%	100.0%
인민학교	0	0	1	3	2	0	6
	0.0%	0.0%	16.7%	50.0%	33.3%	0.0%	100.0%
무학	0	0	0	1	0	0	1
	0.0%	0.0%	0.0%	100.0%	0.0%	0.0%	100.0%
전체	10	16	77	95	91	4	293
	3.4%	5.5%	26.3%	32.4%	31.1%	1.4%	100.0%

대학 학력자들은 경제관리개선.대외협력확대.자본주의 도입으로 분산
 전문학교 학력자들은 경제관리 개선을(39.3%),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35.4%)를 지적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대학 학력자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 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0	2	10	6	2	0	20
	0.0%	10.0%	50.0%	30.0%	10.0%	0.0%	100.0%
2015년	0	2	4	9	14	0	29
	0.0%	6.9%	13.8%	31.0%	48.3%	0.0%	100.0%
전체	0	4	14	15	16	0	49
	0.0%	8.2%	28.6%	30.6%	32.7%	0.0%	100.0%

2014년 조사 대비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36.2% 줄고
자본주의 도입이 38.3% 증가, 향후 추이 주목

사회의 분화

소득.연령대.지역

[소득]

구분	0원	1천원 미만	3천원 미만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5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전체
2012년	41	3	23	16	8	9	5	2	3	110
	37.3%	2.7%	20.9%	14.5%	7.3%	8.2%	4.5%	1.8%	2.7%	100.0%
2013년	60	2	38	14	6	6	1	2	4	133
	45.1%	1.5%	28.6%	10.5%	4.5%	4.5%	0.8%	1.5%	3.0%	100.0%
2014년	81	8	34	10	7	3	3	0	1	147
	55.1%	5.4%	23.1%	6.8%	4.8%	2.0%	2.0%	0.0%	0.7%	100.0%
2015년	73	3	43	13	4	2	3	0	3	144
	50.7%	2.1%	29.9%	9.0%	2.8%	1.4%	2.1%	0.0%	2.1%	100.0%
전체	255	16	138	53	25	20	12	4	11	534
	47.8%	3.0%	25.8%	9.9%	4.7%	3.7%	2.2%	0.7%	2.1%	100.0%

2014년 조사 대비 0원이 4.4% 감소하고 1천~3천 미만이 6.8% 증가
국가로부터 공식 월급을 받지 못한 비율이 50% 정도를 지속

구분	0원	5천원 미만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전체
노동자	54	30	4	5	93
	58.1%	32.3%	4.3%	5.4%	100.0%
농민	13	7	0	1	21
	61.9%	33.3%	0.0%	4.8%	100.0%
사무원	13	26	3	2	44
	29.5%	59.1%	6.8%	4.5%	100.0%
피부양자	2	0	0	1	3
	66.7%	0.0%	0.0%	33.3%	100.0%
학생	8	9	0	2	19
	42.1%	47.4%	0.0%	10.5%	100.0%
군인	4	5	2	2	13
	30.8%	38.5%	15.4%	15.4%	100.0%
가정부인	35	22	1	2	60
	58.3%	36.7%	1.7%	3.3%	100.0%
무직 및 기타	20	12	1	0	33
	60.6%	36.4%	3.0%	0.0%	100.0%
전체	149	111	11	15	286
	52.1%	38.8%	3.8%	5.2%	100.0%

노동자들 58.1%, 군인 30.8%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사무원의 경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29.5%로 최저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0원	1만 원 미만	1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전체
2012년	19	15	16	32	9	9	5	105
	18.1%	14.3%	15.2%	30.5%	8.6%	8.6%	4.8%	100.0%
2013년	16	5	19	33	19	14	26	132
	12.1%	3.8%	14.4%	25.0%	14.4%	10.6%	19.7%	100.0%
2014년	18	8	23	40	15	21	20	145
	12.4%	5.5%	15.9%	27.6%	10.3%	14.5%	13.8%	100.0%
2015년	4	4	8	19	18	44	47	144
	2.8%	2.8%	5.6%	13.2%	12.5%	30.6%	32.6%	100.0%
전체	57	32	66	124	61	88	98	526
	10.8%	6.1%	12.5%	23.6%	11.6%	16.7%	18.6%	100.0%

2014년 조사 대비 30만 원 이상이 크게 증가(+37.1%)
 전체적으로 50만 원 이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1만 원 미만이 감소 추세
 장사나 부업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10.8%를 차지,
 주민의 90%는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을 보전

장사나 부업 소득(5분위)

구분	빈도	비율(%)
2만 원 미만	95	19.3
2만~10만 원	99	20.1
10만 원 초과~30만 원	99	20.1
30만 원 초과~90만 원 미만	102	20.7
90만 원 이상	98	19.9
합계	493	100.0

장사나 부업 소득(10분위)

구분	빈도	비율(%)
0원	56	11.4
150만 원 미만	379	76.9
150만 원 이상	58	11.8
합계	493	100.0

장사.부업을 통한 가구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면 최상위 20% 소득은 월평균 9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
 - 최상위 10%를 다시 구분하면 15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

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남북한 비교

[소득 5분위 배율]

1. 북한의 소득 5분위 배율: 45
 최상위 20% 소득이 최하위 20% 소득의 45배)
2. 남한의 소득 5분위 배율 5.4(2014년)
 최상위 20% 소득이 최하위 20% 소득의 5.4배)

[상대적 빈곤률]

1. 북한: 29.4% (중위소득 20만원의 50%인 1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표본(인구 대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남한: 14.4% (2014년/중위소득 422만 원의 50%인
 211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위 자료가 제한적인 탈북자 표본조사의 장사·부업 소득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추정으로 참고 바람

장사나 부업 소득(5분위)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구분	소매 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임) 가공	식당·상점 임대 운영	되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장사	삿벌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2만 원 미만	21	4	2	2	4	4	2	7	3	15	64
	32.8%	6.3%	3.1%	3.1%	6.3%	6.3%	3.1%	10.9%	4.7%	23.4%	100.0%
2만 원~10만 원	40	4	3	2	8	6	4	6	1	15	89
	44.9%	4.5%	3.4%	2.2%	9.0%	6.7%	4.5%	6.7%	1.1%	16.9%	100.0%
10만 초과~30만 원	37	6	5	2	10	6	2	9	0	16	93
	39.8%	6.5%	5.4%	2.2%	10.8%	6.5%	2.2%	9.7%	0.0%	17.2%	100.0%
30만 초과~90만 원 미만	25	1	2	5	9	17	10	4	1	18	92
	27.2%	1.1%	2.2%	5.4%	9.8%	18.5%	10.9%	4.3%	1.1%	19.6%	100.0%
90만 원 이상	19	0	0	1	17	15	6	2	0	29	89
	21.3%	0.0%	0.0%	1.1%	19.1%	16.9%	6.7%	2.2%	0.0%	32.6%	100.0%
전체	142	15	12	12	48	48	24	28	5	93	427
	33.3%	3.5%	2.8%	2.8%	11.2%	11.2%	5.6%	6.6%	1.2%	21.8%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매장사 비중 감소/되거리 장사나 외화벌이가 증가
 소득 최상위 20%의 기타(36.2%)는 절반 이상이 중국 관련 불법행위(밀수 등)이며, 그 외에 농업, 이동전화 장사, 택시, 과외 등이 포함

장사나 부업 소득(5분위)별 상품.원부자재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일본	기타	전체
2만 원 미만	11	43	1	1	0	56
	19.6%	76.8%	1.8%	1.8%	0.0%	100.0%
2만 원 초과~ 10만 원 미만	23	64	2	0	0	89
	25.8%	71.9%	2.2%	0.0%	0.0%	100.0%
10만원 초과~ 30만원 미만	22	60	1	1	0	84
	26.2%	71.4%	1.2%	1.2%	0.0%	100.0%
30만원 초과~ 90만원 미만	25	58	3	0	1	87
	28.7%	66.7%	3.4%	0.0%	1.1%	100.0%
90만 원 이상	38	35	6	1	1	81
	46.9%	43.2%	7.4%	1.2%	1.2%	100.0%
전체	119	260	13	3	2	397
	30.0%	65.5%	3.3%	0.8%	0.5%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중국산 비중 감소, 북한산과 남한산 비중 증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전체
2012년	91	3	16	1	6	0	1	118
	77.1%	2.5%	13.6%	0.8%	5.1%	0.0%	0.8%	100.0%
2013년	112	0	18	0	3	0	0	133
	84.2%	0.0%	13.5%	0.0%	2.3%	0.0%	0.0%	100.0%
2014년	108	5	27	0	6	1	0	147
	73.5%	3.4%	18.4%	0.0%	4.1%	0.7%	0.0%	100.0%
2015년	118	1	17	0	7	0	3	146
	80.8%	0.7%	11.6%	0.0%	4.8%	0.0%	2.1%	100.0%
전체	429	9	78	1	22	1	4	544
	78.9%	1.7%	14.3%	0.2%	4.0%	0.2%	0.7%	100.0%

2014년 조사 대비 법기관 간부라는 응답이 6.8% 감소
전체적으로 중앙당 간부>법기관 간부 양상 지속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2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관리 일꾼	전체
2012년	7	15	64	1	17	1	2	0	1	0	108
	6.5%	13.9%	59.3%	0.9%	15.7%	0.9%	1.9%	0.0%	0.9%	0.0%	100.0%
2013년	12	18	67	3	19	2	5	2	1	1	130
	9.2%	13.8%	51.5%	2.3%	14.6%	1.5%	3.8%	1.5%	0.8%	0.8%	100.0%
2014년	13	24	70	2	28	3	5	1	0	0	146
	8.9%	16.4%	47.9%	1.4%	19.2%	2.1%	3.4%	0.7%	0.0%	0.0%	100.0%
2015년	10	25	72	5	21	2	8	1	0	0	144
	6.9%	17.4%	50.0%	3.5%	14.6%	1.4%	5.6%	0.7%	0.0%	0.0%	100.0%
전체	42	82	273	11	85	8	20	4	2	1	528
	8.0%	15.5%	51.7%	2.1%	16.1%	1.5%	3.8%	0.8%	0.4%	0.2%	100.0%

전체적으로 법기관 간부>지방당 간부>외화벌이 양상 지속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3	23	23	16	3	35	4	7	7	1	0	122
	2.5%	18.9%	18.9%	13.1%	2.5%	28.7%	3.3%	5.7%	5.7%	0.8%	0.0%	100.0%
2013년	1	36	31	12	4	31	6	4	5	2	1	133
	0.8%	27.1%	23.3%	9.0%	3.0%	23.3%	4.5%	3.0%	3.8%	1.5%	0.8%	100.0%
2014년	11	32	36	15	4	33	4	4	4	1	0	144
	7.6%	22.2%	25.0%	10.4%	2.8%	22.9%	2.8%	2.8%	2.8%	0.7%	0.0%	100.0%
2015년	5	48	36	6	5	28	4	10	1	1	0	144
	3.5%	33.3%	25.0%	4.2%	3.5%	19.4%	2.8%	6.9%	0.7%	0.7%	0.0%	100.0%
전체	20	139	126	49	16	127	18	25	17	5	1	543
	3.7%	25.6%	23.2%	9.0%	2.9%	23.4%	3.3%	4.6%	3.1%	0.9%	0.2%	100.0%

전체적으로 지방당 간부가 증가하고 외화벌이가 감소하는 양상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직업(2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 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전체
2012년	3	17	9	18	9	16	4	21	8	0	3	108
	2.8%	15.7%	8.3%	16.7%	8.3%	14.8%	3.7%	19.4%	7.4%	0.0%	2.8%	100.0%
2013년	1	9	9	21	8	30	6	25	14	0	6	129
	0.8%	7.0%	7.0%	16.3%	6.2%	23.3%	4.7%	19.4%	10.9%	0.0%	4.7%	100.0%
2014년	1	28	4	20	7	23	7	29	15	0	9	143
	0.7%	19.6%	2.8%	14.0%	4.9%	16.1%	4.9%	20.3%	10.5%	0.0%	6.3%	100.0%
2015년	0	16	5	25	5	38	5	26	12	1	11	144
	0.0%	11.1%	3.5%	17.4%	3.5%	26.4%	3.5%	18.1%	8.3%	0.7%	7.6%	100.0%
전체	5	70	27	84	29	107	22	101	49	1	29	524
	1.0%	13.4%	5.2%	16.0%	5.5%	20.4%	4.2%	19.3%	9.4%	0.2%	5.5%	100.0%

전체적으로 외화벌이, 시장상인, 인민위원회 간부가 경쟁하는 양상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1순위)

구분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 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0	0	1	5	1	7	1	0	40	5	63	123
	0.0%	0.0%	.8%	4.1%	.8%	5.7%	0.8%	0.0%	32.5%	4.1%	51.2%	100.0%
2013년	1	0	4	5	1	1	1	3	34	9	74	133
	0.8%	0.0%	3.0%	3.8%	.8%	0.8%	0.8%	2.3%	25.6%	6.8%	55.6%	100.0%
2014년	3	1	6	10	3	4	1	2	25	7	86	148
	2.0%	0.7%	4.1%	6.8%	2.0%	2.7%	0.7%	1.4%	16.9%	4.7%	58.1%	100.0%
2015년	3	2	3	5	0	13	1	0	20	8	91	146
	2.1%	1.4%	2.1%	3.4%	0.0%	8.9%	0.7%	0.0%	13.7%	5.5%	62.3%	100.0%
전체	7	3	14	25	5	25	4	5	119	29	314	550
	1.3%	0.5%	2.5%	4.5%	0.9%	4.5%	0.7%	0.9%	21.6%	5.3%	57.1%	100.0%

전체적으로 농장원이 증가하고 노동자가 감소하는 양상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2순위)

구분	지방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0	1	2	0	8	2	1	39	7	53	113
	0.0%	0.9%	1.8%	0.0%	7.1%	1.8%	0.9%	34.5%	6.2%	46.9%	100.0%
2013년	0	3	4	0	15	4	1	44	12	46	129
	0.0%	2.3%	3.1%	0.0%	11.6%	3.1%	0.8%	34.1%	9.3%	35.7%	100.0%
2014년	1	1	7	2	16	3	4	53	13	41	141
	0.7%	0.7%	5.0%	1.4%	11.3%	2.1%	2.8%	37.6%	9.2%	29.1%	100.0%
2015년	0	0	3	0	13	1	5	66	11	44	143
	0.0%	0.0%	2.1%	0.0%	9.1%	0.7%	3.5%	46.2%	7.7%	30.8%	100.0%
전체	1	5	16	2	52	10	11	202	43	184	526
	0.2%	1.0%	3.0%	0.4%	9.9%	1.9%	2.1%	38.4%	8.2%	35.0%	100.0%

전체적으로 노동자가 증가 / 군관도 10% 정도를 차지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1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29	56	1	2	20	0	7	8	0	123
	23.6%	45.5%	0.8%	1.6%	16.3%	0.0%	5.7%	6.5%	0.0%	100.0%
2013년	42	43	0	1	24	0	4	19	0	133
	31.6%	32.3%	0.0%	.8%	18.0%	0.0%	3.0%	14.3%	0.0%	100.0%
2014년	41	44	1	1	33	0	6	22	0	148
	27.7%	29.7%	0.7%	0.7%	22.3%	0.0%	4.1%	14.9%	0.0%	100.0%
2015년	25	63	1	0	23	1	7	22	4	146
	17.1%	43.2%	0.7%	0.0%	15.8%	0.7%	4.8%	15.1%	2.7%	100.0%
전체	137	206	3	4	100	1	24	71	4	550
	24.9%	37.5%	0.5%	0.7%	18.2%	0.2%	4.4%	12.9%	0.7%	100.0%

2013년 이후 정치사상성이 감소하고 본인 직위가 증가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2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 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3	28	2	3	47	4	13	22	1	123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100.0%
2013년	4	33	3	5	52	8	8	19	1	133
	3.0%	24.8%	2.3%	3.8%	39.1%	6.0%	6.0%	14.3%	0.8%	100.0%
2014년	11	32	7	3	47	9	6	29	3	147
	7.5%	21.8%	4.8%	2.0%	32.0%	6.1%	4.1%	19.7%	2.0%	100.0%
2015년	8	31	3	3	54	13	13	18	1	144
	5.6%	21.5%	2.1%	2.1%	37.5%	9.0%	9.0%	12.5%	0.7%	100.0%
전체	26	124	15	14	200	34	40	88	6	547
	4.8%	22.7%	2.7%	2.6%	36.6%	6.2%	7.3%	16.1%	1.1%	100.0%

전체적으로 권력층 안면관계 > 본인 직위 양상 지속
출신성분이 지난해보다 7.2%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6%대를 차지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3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 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6	12	5	3	21	16	17	30	12	122
	4.9%	9.8%	4.1%	2.5%	17.2%	13.1%	13.9%	24.6%	9.8%	100.0%
2013년	6	20	6	8	19	14	19	28	13	133
	4.5%	15.0%	4.5%	6.0%	14.3%	10.5%	14.3%	21.1%	9.8%	100.0%
2014년	6	21	8	6	23	17	29	27	9	146
	4.1%	14.4%	5.5%	4.1%	15.8%	11.6%	19.9%	18.5%	6.2%	100.0%
2015년	1	16	7	3	14	24	33	32	15	145
	0.7%	11.0%	4.8%	2.1%	9.7%	16.6%	22.8%	22.1%	10.3%	100.0%
전체	19	69	26	20	77	71	98	117	49	546
	3.5%	12.6%	4.8%	3.7%	14.1%	13.0%	17.9%	21.4%	9.0%	100.0%

전체적으로 개인 성격이나 노력, 사는 지역이 증가하는 양상

장사.부업 소득(10분위)별 경제적 계층분화 인식(1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 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0원	19	14	0	1	12	0	1	9	0	56
	33.9%	25.0%	0.0%	1.8%	21.4%	0.0%	1.8%	16.1%	0.0%	100.0%
150만원 미만	89	144	1	2	69	0	15	52	3	375
	23.7%	38.4%	0.3%	0.5%	18.4%	0.0%	4.0%	13.9%	0.8%	100.0%
150만원 이상	14	20	1	0	7	1	7	7	1	58
	24.1%	34.5%	1.7%	0.0%	12.1%	1.7%	12.1%	12.1%	1.7%	100.0%
전체	122	178	2	3	88	1	23	68	4	489
	24.9%	36.4%	0.4%	0.6%	18.0%	0.2%	4.7%	13.9%	0.8%	100.0%

최상위 10%와 최하위 10%를 비교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정치사상성, 권력층 안면관계, 출신성분은 감소
반면 본인 직위와 개인의 성격이나 노력은 증가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복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 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만원 미만	5	1	5	15	8	1	35
	14.3%	2.9%	14.3%	42.9%	22.9%	2.9%	100.0%
2만원~ 10만원	0	2	10	15	10	1	38
	0.0%	5.3%	26.3%	39.5%	26.3%	2.6%	100.0%
10만 초과~ 30만원	1	4	17	16	16	0	54
	1.9%	7.4%	31.5%	29.6%	29.6%	0.0%	100.0%
30만원 초과 ~90만원 미만	2	6	16	25	23	1	73
	2.7%	8.2%	21.9%	34.2%	31.5%	1.4%	100.0%
90만 이상	2	3	22	18	25	0	70
	2.9%	4.3%	31.4%	25.7%	35.7%	0.0%	100.0%
전체	10	16	70	89	82	3	270
	3.7%	5.9%	25.9%	33.0%	30.4%	1.1%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상성 강화와 대외협력이 각각 11.4%, 17.2% 감소
반면 자본주의 도입과 경제관리 개선은 각각 12.8%, 17.1% 증가
최상층은 최하층보다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국가지급 가구 생활비 수준별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0원	8	7	41	44	50	4	154
	5.2%	4.5%	26.6%	28.6%	32.5%	2.6%	100.0%
1만 원 미만	1	7	34	41	39	0	122
	0.8%	5.7%	27.9%	33.6%	32.0%	0.0%	100.0%
1만 원 이상	2	2	0	8	3	0	15
	13.3%	13.3%	0.0%	53.3%	20.0%	0.0%	100.0%
전체	11	16	75	93	92	4	291
	3.8%	5.5%	25.8%	32.0%	31.6%	1.4%	100.0%

국가지급 생활비가 많아질수록 경제체제 개혁에 소극적인 인식 표출
(1만원 이상이 0원보다 사상성 강화와 대외협력에서 각각 8.1%, 24.7% 높고,
경제관리 개선과 자본주의 도입에서 각각 26.6%, 12.6% 낮음)

국가지급 생활비 수준별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0원	198	57	255
	77.6%	22.4%	100.0%
1만 원 미만	170	61	231
	73.6%	26.4%	100.0%
1만 원 이상	26	21	47
	55.3%	44.7%	100.0%
전체	394	139	533
	73.9%	26.1%	100.0%

국가지급 생활비가 많아질수록 장사경험 비율이 감소
(1만 원 이상의 장사경험자 비율이 0원보다 22.3% 낮음)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구분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다른 지역 이동			
	자주 감	가끔 감	거의 못감	전체
2만 원 미만	13	40	42	95
	13.7%	42.1%	44.2%	100.0%
2만 원~10만 원	21	36	42	99
	21.2%	36.4%	42.4%	100.0%
10만 초과~30만 원	26	41	32	99
	26.3%	41.4%	32.3%	100.0%
30만 원 초과~90만 원 미만	30	44	28	102
	29.4%	43.1%	27.5%	100.0%
90만 이상	45	35	18	98
	45.9%	35.7%	18.4%	100.0%
전체	135	196	162	493
	27.4%	39.8%	32.9%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빈도가 증가
(최상층의 경우 최하층보다 32.2%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구분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남한 문화 경험			
	자주 접함	한두 번 접함	전혀 못 접함	전체
2만 원 미만	26	51	18	95
	27.4%	53.7%	18.9%	100.0%
2만 원~10만 원	34	51	14	99
	34.3%	51.5%	14.1%	100.0%
10만 초과~30만 원	47	39	13	99
	47.5%	39.4%	13.1%	100.0%
30만 원 초과~90만 원 미만	55	38	9	102
	53.9%	37.3%	8.8%	100.0%
90만 원 이상	65	29	4	98
	66.3%	29.6%	4.1%	100.0%
전체	227	208	58	493
	46.0%	42.2%	11.8%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함
(자주 접한다는 응답의 최상위 20%와 최하위 20%간 차이가 38.9%)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남한 문화 친숙도					
구분	매우 친숙	약간 친숙	별로 친숙하지 않음	전혀 친숙하지 않음	전체
2만 원 미만	36	39	3	3	81
	44.4%	48.1%	3.7%	3.7%	100.0%
2만 원~ 10만 원	55	27	5	1	88
	62.5%	30.7%	5.7%	1.1%	100.0%
10만 초과~ 30만 원	46	32	8	2	88
	52.3%	36.4%	9.1%	2.3%	100.0%
30만 원 초과~ 90만 원 미만	61	25	8	0	94
	64.9%	26.6%	8.5%	0.0%	100.0%
90만 원 이상	64	26	3	0	93
	68.8%	28.0%	3.2%	0.0%	100.0%
전체	262	149	27	6	444
	59.0%	33.6%	6.1%	1.4%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남한 문화에 매우 친숙함
(매우 친숙하다는 응답의 최상위 20%와 최하위 20%간 차이가 24.4%)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남한 인식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2만 원 미만	13	54	1	10	16	94
	13.8%	57.4%	1.1%	10.6%	17.0%	100.0%
2만 원~ 10만 원	9	56	2	13	17	97
	9.3%	57.7%	2.1%	13.4%	17.5%	100.0%
10만 초과~ 30만 원	6	62	1	11	17	97
	6.2%	63.9%	1.0%	11.3%	17.5%	100.0%
30만원 초과~9 0만원 미만	7	60	3	12	20	102
	6.9%	58.8%	2.9%	11.8%	19.6%	100.0%
90만 원 이상	8	68	8	4	9	97
	8.2%	70.1%	8.2%	4.1%	9.3%	100.0%
전체	43	300	15	50	79	487
	8.8%	61.6%	3.1%	10.3%	16.2%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협력대상이 증가하고
최상위 20%의 경우 다른 층에 비해 적대대상이 현저하게 감소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

구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없다	전체
2만 원 미만	30	33	63	15	16	31	94
	31.9%	35.1%	67.0%	16.0%	17.0%	33.0%	100.0%
2만 원~10만 원	33	30	63	20	16	36	99
	33.3%	30.3%	63.6%	20.2%	16.2%	36.4%	100.0%
10만 초과~30만 원	23	28	51	32	16	48	99
	23.2%	28.3%	51.5%	32.3%	16.2%	48.5%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32	21	53	28	21	49	102
	31.4%	20.6%	52.0%	27.5%	20.6%	48.0%	100.0%
90만 원 이상	18	21	39	34	25	59	98
	18.4%	21.4%	39.8%	34.7%	25.5%	60.2%	100.0%
전체	136	133	269	129	94	223	492
	27.6%	27.0%	54.7%	26.2%	19.1%	45.3%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 증가
 최상층의 경우 최하층보다 <없다>는 응답이 27.2%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장사.부업 소득(5분위)별 남북한경제시스템 지지도

구분	사회주의 훨씬 더 지지	사회주의 약간 더 지지	비슷하게 지지	자본주의 약간 더 지지	자본주의 훨씬 더 지지	전체
2만 원 미만	10	6	17	33	29	95
	10.5%	6.3%	17.9%	34.7%	30.5%	100.0%
2만 원~10만 원	11	13	9	32	34	99
	11.1%	13.1%	9.1%	32.3%	34.3%	100.0%
10만 초과~30만 원	7	7	13	32	40	99
	7.1%	7.1%	13.1%	32.3%	40.4%	100.0%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7	8	15	26	46	102
	6.9%	7.8%	14.7%	25.5%	45.1%	100.0%
90만 이상	3	3	8	27	57	98
	3.1%	3.1%	8.2%	27.6%	58.2%	100.0%
전체	38	37	62	150	206	493
	7.7%	7.5%	12.6%	30.4%	41.8%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본주의를 훨씬 더 지지했다는 응답 증가
 (최상층의 경우 최하층보다 27.7%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대남 인식 변화

장사.부업 소득(10분위)별 통일방식 인식						
구분	현 북한체제	남북 절충	남북 두 체제 유지	현 남한체제	통일만 되면 상관없다	전체
0원	1	4	0	4	12	21
	4.8%	19.0%	0.0%	19.0%	57.1%	100.0%
150만 원 미만	5	43	13	94	51	206
	2.4%	20.9%	6.3%	45.6%	24.8%	100.0%
150만 원 이상	2	6	3	22	9	42
	4.8%	14.3%	7.1%	52.4%	21.4%	100.0%
전체	8	53	16	120	72	269
	3.0%	19.7%	5.9%	44.6%	26.8%	100.0%

소득이 올라갈수록 현 남한 체제로의 통일 선호 증가
(최상위 10%의 경우 최하위 10%보다 33.4% 높음)

[연령대]

연령대(4구간)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20-35미만	301	45.6	
35-45미만	143	21.7	
45-55미만	133	20.2	
55이상	83	12.6	
전체	660	100.0	

1. 20~35세 미만은 청년 세대 분류
2. 35~45세 미만은 1995년(20세 전후)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진출
3. 45~55세 미만은 1984년(20세 전후) 8.3조치 시기 사회진출
4. 55세 이상은 대체로 1980년 이전 사회진출

연령대(4구간)별 장사경험				※ 연령대(6구간)별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구분	있다	없다	전체
35세 미만	193	105	298	20대 이상	114	90	204
	64.8%	35.2%	100.0%		55.9%	44.1%	100.0%
35-45세 미만	118	25	143	30대 이상	134	20	154
	82.5%	17.5%	100.0%		87.0%	13.0%	100.0%
45-55세 미만	111	21	132	40대 이상	135	25	160
	84.1%	15.9%	100.0%		84.4%	15.6%	100.0%
55세 이상	53	29	82	50대 이상	65	17	82
	64.6%	35.4%	100.0%		79.3%	20.7%	100.0%
전체	475	180	655	60대 이상	26	22	48
	72.5%	27.5%	100.0%		54.2%	45.8%	100.0%
				전체	474	174	648
					73.1%	26.9%	100.0%

35~55세나 30~50대 장사경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20~30% 높음
 복한 경제활동의 주력으로, 시장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연령대별 장사.부업 소득(5분위)							
구분	2만 원 미만	2만~10만 원	10만 원 초과~30만 원	30만원 초과~90만원 미만	90만 원 이상	전체	
35세 미만	40	43	31	60	53	227	
	17.6%	18.9%	13.7%	26.4%	23.3%	100.0%	
35-45세 미만	16	20	31	19	18	104	
	15.4%	19.2%	29.8%	18.3%	17.3%	100.0%	
45-55세 미만	20	24	24	17	21	106	
	18.9%	22.6%	22.6%	16.0%	19.8%	100.0%	
55세 이상	19	12	13	6	6	56	
	33.9%	21.4%	23.2%	10.7%	10.7%	100.0%	
전체	95	99	99	102	98	493	
	19.3%	20.1%	20.1%	20.7%	19.9%	100.0%	

연령대가 낮을수록 30만원 이상 소득군의 비중이 증가
 35세 미만 90만원 이상 소득원: 되거리.소매장사, 외화벌이, 돈장사 등

연령대별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인식(1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 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35세 미만	64	77	2	2	53	0	17	35	4	254
	25.2%	30.3%	0.8%	0.8%	20.9%	0.0%	6.7%	13.8%	1.6%	100.0%
35-45세 미만	28	46	0	2	14	1	6	19	0	116
	24.1%	39.7%	0.0%	1.7%	12.1%	0.9%	5.2%	16.4%	0.0%	100.0%
45-55세 미만	28	52	1	0	25	0	1	15	0	122
	23.0%	42.6%	0.8%	0.0%	20.5%	0.0%	0.8%	12.3%	0.0%	100.0%
55세 이상	17	31	0	0	8	0	0	2	0	58
	29.3%	53.4%	0.0%	0.0%	13.8%	0.0%	0.0%	3.4%	0.0%	100.0%
전체	137	206	3	4	100	1	24	71	4	550
	24.9%	37.5%	0.5%	0.7%	18.2%	0.2%	4.4%	12.9%	0.7%	100.0%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 직위를 중요시
 (55세 이상이 35세 미만보다 23.1% 높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미미하지만 개인성격·노력의 비율 증가

연령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35세 미만	33	22	51	42	54	202
	16.3%	10.9%	25.2%	20.8%	26.7%	100.0%
35-45세 미만	6	6	21	20	59	112
	5.4%	5.4%	18.8%	17.9%	52.7%	100.0%
45-55세 미만	7	2	17	19	67	112
	6.3%	1.8%	15.2%	17.0%	59.8%	100.0%
55세 이상	1	0	5	2	40	48
	2.1%	0.0%	10.4%	4.2%	83.3%	100.0%
전체	47	30	94	83	220	474
	9.9%	6.3%	19.8%	17.5%	46.4%	100.0%

연령대가 높을 수록 5년 이상 사업지속 비중이 급증
 5년 미만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중이 증가

연령대별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 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 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35세 미만	48	34	58	31	9	14	27	28	249
	19.3%	13.7%	23.3%	12.4%	3.6%	5.6%	10.8%	11.2%	100.0%
35-45세 미만	33	17	30	7	13	4	7	4	115
	28.7%	14.8%	26.1%	6.1%	11.3%	3.5%	6.1%	3.5%	100.0%
45-55세 미만	28	13	42	6	9	4	8	10	120
	23.3%	10.8%	35.0%	5.0%	7.5%	3.3%	6.7%	8.3%	100.0%
55세 이상	22	7	17	1	2	3	0	7	59
	37.3%	11.9%	28.8%	1.7%	3.4%	5.1%	0.0%	11.9%	100.0%
전체	131	71	147	45	33	25	42	49	543
	24.1%	13.1%	27.1%	8.3%	6.1%	4.6%	7.7%	9.0%	100.0%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토지 사유화 인식 증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인 운영.소유 생산설비 사유화 인식 증가

연령대별 복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 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35세 미만	5	7	28	48	48	1	137
	3.6%	5.1%	20.4%	35.0%	35.0%	.7%	100.0%
35-45세 미만	4	1	27	16	11	1	60
	6.7%	1.7%	45.0%	26.7%	18.3%	1.7%	100.0%
45-55세 미만	0	4	14	22	26	1	67
	0.0%	6.0%	20.9%	32.8%	38.8%	1.5%	100.0%
55세 이상	2	4	8	9	7	1	31
	6.5%	12.9%	25.8%	29.0%	22.6%	3.2%	100.0%
전체	11	16	77	95	92	4	295
	3.7%	5.4%	26.1%	32.2%	31.2%	1.4%	100.0%

35세 미만에서는 자본주의 도입과 대외협력 확대가 팽팽
45세 미만은 경제관리 개선을 선호
55세 미만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55세 이상은 대외협력 확대, 경제관리 개선, 자본주의 도입으로 분산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연령대별 남한 문화 경험				
구분	자주 접함	한두번 접함	전혀 접하지 못함	전체
35세 미만	165	108	27	300
	55.0%	36.0%	9.0%	100.0%
35-45세 미만	56	67	20	143
	39.2%	46.9%	14.0%	100.0%
45-55세 미만	63	53	16	132
	47.7%	40.2%	12.1%	100.0%
55세 이상	17	37	29	83
	20.5%	44.6%	34.9%	100.0%
전체	301	265	92	658
	45.7%	40.3%	14.0%	100.0%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함
 (35세 미만에서 자주 접한다는 응답이 55세 이상보다 34.5% 높음)
 45~55세 미만이 47.7%로 45세 미만이나 55세 이상보다 높음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연령대별 남한에 대한 인식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35세 미만	20	170	12	39	56	297
	6.7%	57.2%	4.0%	13.1%	18.9%	100.0%
35-45세 미만	10	90	3	19	19	141
	7.1%	63.8%	2.1%	13.5%	13.5%	100.0%
45-55세 미만	14	89	2	7	18	130
	10.8%	68.5%	1.5%	5.4%	13.8%	100.0%
55세 이상	14	41	1	9	12	77
	18.2%	53.2%	1.3%	11.7%	15.6%	100.0%
전체	58	390	18	74	105	645
	9.0%	60.5%	2.8%	11.5%	16.3%	100.0%

35세 미만에서는 적대대상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45세 미만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이 높고, 경계.적대 인식도 병존
 55세 미만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이 가장 높음
 55세 이상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이 가장 낮고, 지원대상 인식이 높음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연령대(35세 미만)*남한문화경험*남한에 대한 인식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지원+협력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경계+적대	전체
자주 접함	12	109		7	16	20		164
	7.3%	66.5%	73.8%	4.3%	9.8%	12.2%	22.0%	100.0%
한두번 접함	5	49		3	22	27		106
	4.7%	46.2%	50.9%	2.8%	20.8%	25.5%	46.2%	100.0%
전혀 못 접함	3	12		2	1	9		27
	11.1%	44.4%	55.6%	7.4%	3.7%	33.3%	37.0%	100.0%
전체	20	170		12	39	56		297
	6.7%	57.2%	64.0%	4.0%	13.1%	18.9%	32.0%	100.0%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연령대별 남북 경제체제 지지도							
구분	사회주의 훨씬 더 지지	사회주의 약간 더 지지	비슷하게 지지	자본주의 약간 더 지지	자본주의 훨씬 더 지지	* 자본주의 더 지지	전체
35세 미만	29	26	44	80	121		300
	9.7%	8.7%	14.7%	26.7%	40.3%	67.0%	100.0%
35-45세 미만	11	13	17	41	61		143
	7.7%	9.1%	11.9%	28.7%	42.7%	71.3%	100.0%
45-55세 미만	5	7	9	56	55		132
	3.8%	5.3%	6.8%	42.4%	41.7%	84.1%	100.0%
55세 이상	6	7	14	27	29		83
	7.2%	8.4%	16.9%	32.5%	34.9%	67.5%	100.0%
전체	51	53	84	204	266		658
	7.8%	8.1%	12.8%	31.0%	40.4%	71.4%	100.0%

자본주의를 더 지지한다는 응답이 45~55세 미만에서 가장 높음
35세 미만에서 가장 낮음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구분	현 북한체제	남북 절충	남북 두 체제 유지	현 남한체제	통일만 되면 상관없다	전체
35세 미만	5	21	4	68	38	136
	3.7%	15.4%	2.9%	50.0%	27.9%	100.0%
35-45세 미만	0	12	2	33	13	60
	0.0%	20.0%	3.3%	55.0%	21.7%	100.0%
45-55세 미만	2	15	9	18	23	67
	3.0%	22.4%	13.4%	26.9%	34.3%	100.0%
55세 이상	1	9	2	11	8	31
	3.2%	29.0%	6.5%	35.5%	25.8%	100.0%
전체	8	57	17	130	82	294
	2.7%	19.4%	5.8%	44.2%	27.9%	100.0%

35세 미만이나 45세 미만 층에서 현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 절반을 상회
 45~55세 미만에서는 통일만 되면 상관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55세 이상에서는 현 남한 체제가 다수지만 남북절충도 높은 수준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구분	10%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이상	* 50% 이상	전체
35세 미만	28	26	24	14	51	40	24	38	54		299
	9.4%	8.7%	8.0%	4.7%	17.1%	13.4%	8.0%	12.7%	18.1%	69.2%	100.0%
35-45세 미만	13	14	23	8	28	9	8	16	24		143
	9.1%	9.8%	16.1%	5.6%	19.6%	6.3%	5.6%	11.2%	16.8%	59.4%	100.0%
45-55세 미만	14	10	19	10	34	15	7	15	9		133
	10.5%	7.5%	14.3%	7.5%	25.6%	11.3%	5.3%	11.3%	6.8%	60.2%	100.0%
55세 이상	16	8	14	4	17	1	2	7	12		81
	19.8%	9.9%	17.3%	4.9%	21.0%	1.2%	2.5%	8.6%	14.8%	48.1%	100.0%
전체	71	58	80	36	130	65	41	76	99		656
	10.8%	8.8%	12.2%	5.5%	19.8%	9.9%	6.3%	11.6%	15.1%	62.7%	100.0%

연령대가 낮을수록 50% 이상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35세 미만의 경우 55세 이상보다 21.1% 높음)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연령대별 김정은 정권 예상 유지 기간									
구분	5년 미만	5~10년	* 10년 내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35세 미만	24	64		37	22	25	42	87	301
	8.0%	21.3%	29.3%	12.3%	7.3%	8.3%	14.0%	28.9%	100.0%
35~45세 미만	12	40		21	8	8	25	29	143
	8.4%	28.0%	36.4%	14.7%	5.6%	5.6%	17.5%	20.3%	100.0%
45~55세 미만	23	34		19	4	10	20	22	132
	17.4%	25.8%	43.2%	14.4%	3.0%	7.6%	15.2%	16.7%	100.0%
55세 이상	21	17		7	1	5	10	20	81
	25.9%	21.0%	46.9%	8.6%	1.2%	6.2%	12.3%	24.7%	100.0%
전체	80	155		84	35	48	97	158	657
	12.2%	23.6%	35.8%	12.8%	5.3%	7.3%	14.8%	24.0%	100.0%

10년 이내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 수록 응답비율이 낮음
(35세 미만의 경우 55세 이상보다 17.7% 낮음)

※ 연령대별 통일.대남.대내 인식 변화

연령대별 핵무기 보유 지지도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찬성	반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반대	전체
35세 미만	39	32		41	11	14		137
	28.5%	23.4%	51.9%	29.9%	8.0%	10.2%	18.2%	100.0%
35~45세 미 만	22	7		15	8	8		60
	36.7%	11.7%	48.4%	25.0%	13.3%	13.3%	26.6%	100.0%
45~55세 미 만	20	17		16	5	9		67
	29.9%	25.4%	55.3%	23.9%	7.5%	13.4%	20.9%	100.0%
55세 이상	9	0		5	4	13		31
	29.0%	0.0%	29.0%	16.1%	12.9%	41.9%	54.8%	100.0%
전체	90	56		77	28	44		295
	30.5%	19.0%	49.5%	26.1%	9.5%	14.9%	24.4%	100.0%

55세 이상의 절반 이상이 반대, 45~55세 미만의 절반 이상이 찬성
35세 미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20대의 경우 찬성이 59.6%)

[지역]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도)

구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43	14	8	32	6	8	0	1	0	112
	38.4%	12.5%	7.1%	28.6%	5.4%	7.1%	0.0%	0.9%	0.0%	100.0%
2013년	55	9	5	31	10	20	1	1	1	133
	41.4%	6.8%	3.8%	23.3%	7.5%	15.0%	0.8%	0.8%	0.8%	100.0%
2014년	47	32	2	29	6	29	3	0	0	148
	31.8%	21.6%	1.4%	19.6%	4.1%	19.6%	2.0%	0.0%	0.0%	100.0%
2015년	44	34	3	26	3	26	3	1	1	141
	31.2%	24.1%	2.1%	18.4%	2.1%	18.4%	2.1%	0.7%	0.7%	100.0%
전체	189	89	18	118	25	83	7	3	2	534
	35.4%	16.7%	3.4%	22.1%	4.7%	15.5%	1.3%	0.6%	0.4%	100.0%

전체적으로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사는 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평안북도라는 응답이 증가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지역(도)

구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12	10	13	25	9	31	5	10	4	119
	10.1%	8.4%	10.9%	21.0%	7.6%	26.1%	4.2%	8.4%	3.4%	100.0%
2013년	14	13	17	30	12	32	7	2	6	133
	10.5%	9.8%	12.8%	22.6%	9.0%	24.1%	5.3%	1.5%	4.5%	100.0%
2014년	12	25	15	33	11	37	6	2	4	145
	8.3%	17.2%	10.3%	22.8%	7.6%	25.5%	4.1%	1.4%	2.8%	100.0%
2015년	25	9	17	44	11	28	4	2	4	144
	17.4%	6.3%	11.8%	30.6%	7.6%	19.4%	2.8%	1.4%	2.8%	100.0%
전체	63	57	62	132	43	128	22	16	18	541
	11.6%	10.5%	11.5%	24.4%	7.9%	23.7%	4.1%	3.0%	3.3%	100.0%

2014년까지 양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함경북도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도)

구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3	1	15	12	10	8	13	7	46	115
	2.6%	0.9%	13.0%	10.4%	8.7%	7.0%	11.3%	6.1%	40.0%	100.0%
2013년	0	0	12	5	19	12	17	10	57	132
	0.0%	0.0%	9.1%	3.8%	14.4%	9.1%	12.9%	7.6%	43.2%	100.0%
2014년	2	1	15	9	20	16	15	15	51	144
	1.4%	0.7%	10.4%	6.3%	13.9%	11.1%	10.4%	10.4%	35.4%	100.0%
2015년	1	2	8	4	21	12	30	22	41	141
	0.7%	1.4%	5.7%	2.8%	14.9%	8.5%	21.3%	15.6%	29.1%	100.0%
전체	6	4	50	30	70	48	75	54	195	532
	1.1%	.8%	9.4%	5.6%	13.2%	9.0%	14.1%	10.2%	36.7%	100.0%

강원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
2014년 조사 대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라는 지적이 증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평양 제외)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34	7	43	6	2	5	16	0	3	116
	29.3%	6.0%	37.1%	5.2%	1.7%	4.3%	13.8%	0.0%	2.6%	100.0%
2013년	36	9	45	14	4	4	19	0	1	132
	27.3%	6.8%	34.1%	10.6%	3.0%	3.0%	14.4%	0.0%	0.8%	100.0%
2014년	52	6	45	17	3	3	18	2	0	146
	35.6%	4.1%	30.8%	11.6%	2.1%	2.1%	12.3%	1.4%	0.0%	100.0%
2015년	41	11	57	12	5	0	13	1	6	146
	28.1%	7.5%	39.0%	8.2%	3.4%	0.0%	8.9%	0.7%	4.1%	100.0%
전체	163	33	190	49	14	12	66	3	10	540
	30.2%	6.1%	35.2%	9.1%	2.6%	2.2%	12.2%	0.6%	1.9%	100.0%

2014년 조사 대비 신의주가 줄어들고 라선이 증가
전체적으로 라선이 평양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라는 비율이 지속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개방 거점 도시)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도시(평양 제외)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19	23	24	16	11	4	18	3	4	122
	15.6%	18.9%	19.7%	13.1%	9.0%	3.3%	14.8%	2.5%	3.3%	100.0%
2013년	19	29	12	22	8	7	26	4	5	132
	14.4%	22.0%	9.1%	16.7%	6.1%	5.3%	19.7%	3.0%	3.8%	100.0%
2014년	21	24	21	36	8	9	17	5	6	147
	14.3%	16.3%	14.3%	24.5%	5.4%	6.1%	11.6%	3.4%	4.1%	100.0%
2015년	18	31	22	24	7	7	27	6	2	144
	12.5%	21.5%	15.3%	16.7%	4.9%	4.9%	18.8%	4.2%	1.4%	100.0%
전체	77	107	79	98	34	27	88	18	17	545
	14.1%	19.6%	14.5%	18.0%	6.2%	5.0%	16.1%	3.3%	3.1%	100.0%

전체적으로 청진, 혜산, 평성, 신의주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평양 제외)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2	7	4	15	20	6	6	33	16	109
	1.8%	6.4%	3.7%	13.8%	18.3%	5.5%	5.5%	30.3%	14.7%	100.0%
2013년	0	12	1	23	18	18	1	34	24	131
	0.0%	9.2%	0.8%	17.6%	13.7%	13.7%	0.8%	26.0%	18.3%	100.0%
2014년	2	17	4	16	35	13	2	36	18	143
	1.4%	11.9%	2.8%	11.2%	24.5%	9.1%	1.4%	25.2%	12.6%	100.0%
2015년	3	8	1	30	26	20	5	39	14	146
	2.1%	5.5%	0.7%	20.5%	17.8%	13.7%	3.4%	26.7%	9.6%	100.0%
전체	7	44	10	84	99	57	14	142	72	529
	1.3%	8.3%	1.9%	15.9%	18.7%	10.8%	2.6%	26.8%	13.6%	100.0%

전체적으로 사리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원산, 혜산, 개성 등이 가장 못 사는 도시로 거론됨

[결론]

1. 시장화

- 2014년 조사 대비 상품·원부자재의 북한산 비중 증가
- 애로사항에서 뇌물 제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지방산업공장 등 소규모 생산설비 사유화 인식 증가 추세
- 경제난 책임이 최고영도자에게 있다는 지적이 절대 다수
- 잘 살기 위한 정책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와 자본주의 도입이 다수를 차지

2. 소득분화

- 북한의 소득 5분위 배율은 45 정도로 추정(남한 5.4)
- 북한의 상대적 빈곤율도 29.4% 정도로 추정(남 14.4%)
- 북한 사회에서 소득에 따른 계층분화가 사회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주목

[결론]

3. 연령대(세대)

○ 잘 살기 위한 정책과 관련

- 35세 미만에서는 자본주의 도입과 대외협력 확대가 팽팽
- 45세 미만은 경제관리 개선을 선호
- 55세 미만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 55세 이상은 대외협력 확대, 경제관리 개선, 자본주의 도입으로 분산

○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 북한 정권의 10년 내 붕괴 가능성을 5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본 반면 35세 미만이 가장 낮게 봄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55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 45~55세 미만에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 35세 미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20대의 경우 찬성 비율이 최고)

[결론]

4. 지역(평양 제외)

- 도 단위: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살고 강원도가 가장 못 삶
- 2015년 황해남북도가 가장 못 산다는 인식이 증가
- 시 단위로는 라선이 가장 잘 살고 사리원이 가장 못 삶

※ 남안문화경험

남안문화 경험별 남한에 대한 인식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지원+협력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경계+적대	전체
자주 접함	24	206		9	22	36		297
	8.1%	69.4%	77.4%	3.0%	7.4%	12.1%	19.5%	100.0%
한두번 접함	22	141		5	42	47		257
	8.6%	54.9%	63.4%	1.9%	16.3%	18.3%	34.6%	100.0%
전혀 못 접함	12	43		4	10	22		91
	13.2%	47.3%	60.4%	4.4%	11.0%	24.2%	35.2%	100.0%
전체	58	390		18	74	105		645
	9.0%	60.5%	69.5%	2.8%	11.5%	16.3%	27.8%	100.0%

※ 남안문화경험

남한문화 경험별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구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체
자주 접함	57	78		88	77	300
	19.0%	26.0%	45.0%	29.3%	25.7%	100.0%
한두번 접함	81	78		69	37	265
	30.6%	29.4%	60.0%	26.0%	14.0%	100.0%
전혀 못접함	45	19		16	12	92
	48.9%	20.7%	69.6%	17.4%	13.0%	100.0%
전체	183	175		173	126	657
	27.9%	26.6%	54.5%	26.3%	19.2%	100.0%

※ 남안문화경험

남한문화 경험별 남북한경제시스템 지지정도

구분	사회주의 훨씬 더 지지	사회주의 약간 더 지지	비슷하게 지지	자본주의 약간 더 지지	자본주의 훨씬 더 지지	자본주의 지지	전체
자주 접함	12	12	33	91	152		300
	4.0%	4.0%	11.0%	30.3%	50.7%	81.0%	100.0%
한두번 접함	23	28	37	81	96		265
	8.7%	10.6%	14.0%	30.6%	36.2%	66.8%	100.0%
전혀 못접함	16	13	14	32	17		92
	17.4%	14.1%	15.2%	34.8%	18.5%	53.3%	100.0%
전체	51	53	84	204	265		657
	7.8%	8.1%	12.8%	31.1%	40.3%	71.4%	100.0%

※ 남안문화경험

남한문화 경험별 집단-개인 우선 정도

구분	집단 훨씬 더 우선	집단 조금 더 우선	나(가족) 훨씬 더 우선	나(가족) 조금 더 우선	나(가족) 우선	전체
자주 접함	18	17	248	18		301
	6.0%	5.6%	82.4%	6.0%	88.4%	100.0%
한두번 접함	14	28	206	16		264
	5.3%	10.6%	78.0%	6.1%	84.1%	100.0%
전혀 못접함	12	11	65	4		92
	13.0%	12.0%	70.7%	4.3%	75.0%	100.0%
전체	44	56	519	38		657
	6.7%	8.5%	79.0%	5.8%	84.8%	100.0%

※ 남안문화경험

남한문화 경험별 평화위협국가 인식

구분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전체
자주 접함	156	25	3	65	0	249
	62.7%	10.0%	1.2%	26.1%	0.0%	100.0%
한두번 접함	170	15	9	31	1	226
	75.2%	6.6%	4.0%	13.7%	0.4%	100.0%
전혀 못접함	50	5	5	7	0	67
	74.6%	7.5%	7.5%	10.4%	0.0%	100.0%
전체	376	45	17	103	1	542
	69.4%	8.3%	3.1%	19.0%	0.2%	100.0%

※ 다른 지역 방문 경험

다른 지역 방문 경험별 남북한경제시스템 지지도

구분	사회주의 훨씬 더 지지	사회주의 약간 더 지지	비슷하게 지지	자본주의 약간 더 지지	자본주의 훨씬 더 지지	자본주의 지지	전체
자주 감	13	7	18	49	90		177
	7.3%	4.0%	10.2%	27.7%	50.8%	78.5%	100.0%
가끔 감	16	17	41	87	104		265
	6.0%	6.4%	15.5%	32.8%	39.2%	72.1%	100.0%
거의 못감	22	29	25	68	71		215
	10.2%	13.5%	11.6%	31.6%	33.0%	64.7%	100.0%
전체	51	53	84	204	265		657
	7.8%	8.1%	12.8%	31.1%	40.3%	71.4%	100.0%

시장화와 소득 · 세대 · 지역 분화 (요약)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시장화

- 장사 경험 비율은 70% 초반 대를 유지 / 전업 장사 비중은 12.5%를 차지
- 2014년 조사 대비 주된 소득원에 5년 이상 종사 비율 하락(-10.3%)
- 2014년 조사 대비 상품 · 원부자재의 북한산 비중 증가, 중국산 감소
- 애로사항에서 뇌물제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조사대상자의 85% 정도가 다소간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응답
- 2014년 조사 대비 타인 고용 비율이 증가(11.3%), 고용 규모는 정체
- 사유화 인식에서 지방산업공장 등 소규모 생산설비 사유화 인식 증가 추세
- 경제난에 대한 책임 인식 1순위에서 최고영도자가 72.7%로 절대 다수를 차지
 - 2순위에서 당지도부가 2014년보다 12.8% 증가, 내각은 7.8% 감소
 - 군부 지적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미미하거나 낮은 비중을 차지
 - 당원이 비당원보다 최고영도자와 당의 책임을 더 많이 지적

- 잘 살기 위한 정책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와 자본주의 도입이 다수를 차지
 - 2014년 조사 대비, 1순위에서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가 10.9% 증가
 - 사상성 강화는 지난해보다 감소(-4.6%), 2순위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5.6% 증가
 - 대학 학력소지자들 중에서 2014년 조사 대비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36.2% 줄고 자본주의 도입이 38.3% 증가, 향후 추이 주목

2. 소득분화

-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중이 50% 정도를 지속 유지
 - 노동자들 58.1%, 군인 30.8%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사무원의 경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29.5%로 최저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소득에서 2014년 조사 대비 30만 원 이상이 증가(+37.1%)
 - 전체적으로 50만 원 이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1만 원 미만이 감소 추세
 - 주민의 90%는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을 보전
- 장사나 부업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를 구분하면 최상위 20%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0만 원 이상, 최하위 20%는 2만 원 미만으로 구성
- 북한의 소득 5분위 배율은 45 정도로 추정(자료의 한계를 감안해서 참고)
 - 남한의 경우 5.4(2014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소득불평등이 남한의 9배 정도 될 가능성
- 북한의 상대적 빈곤율도 29.4% 정도로 추정
 - 이는 남한의 14.4%(2014년 기준)보다 2배 이상일 가능성
- 북한 사회에서 소득에 따른 계층분화가 사회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주목
 - 장사나 부업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 한편 국가 지급 생활비가 커질수록 경제체제 개혁에 소극적 인식 표출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타 지역 이동이나 남한 문화 경험이 많고, 남한 문화에 친숙하며, 남한의 대북무력도발 가능성도 없다고 인식하고,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훨씬 더 지지했다는 응답이 증가하며, 남한 체제로의 통일 선호도 증가

3. 연령대(세대)

- 연령대를 크게 네 구간으로 구분해서 접근
 - 20~35세 미만은 청년 세대 분류
 - 35~45세 미만은 1995년(20세 전후)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진출
 - 45~55세 미만은 1984년(20세 전후) 8.3조치 시기 사회진출
 - 55세 이상은 대체로 1980년 이전 사회진출
 - 장사경험은 35~45세 미만과 45~55세 미전에서 가장 많음
-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과 관련
 - 35세 미만에서는 자본주의 도입과 대외협력 확대가 팽팽
 - 45세 미만은 경제관리 개선을 선호
 - 55세 미만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 55세 이상은 대외협력 확대, 경제관리 개선, 자본주의 도입으로 분산
- 대남인식과 관련
 -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하고
 - 35세 미만에서는 적대대상 인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
 - 45세 미만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이 높고, 경제.적대 인식도 병존
 - 55세 미만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이 가장 높음
 - 55세 이상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이 가장 낮고, 지원대상 인식이 높음
 - 남북 경제체제 비교에서 자본주의를 더 지지했다는 응답이 45~55세 미전에서 가장 높고, 35세 미전에서 가장 낮음

○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민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음
- 북한 정권의 유지기간과 관련 10년 내 붕괴 가능성을 5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본 반면 35세 미만이 가장 낮게 봄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55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45~55세 미만에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 35세 미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20대의 경우 찬성비율이 59.6%로 가장 높음)

4. 지역(평양 제외)

- 도 단위로는 평안남도가 가장 잘 살고 강원도가 가장 못 산다고 인식
 - 2014년 조사 대비 황해남북도가 가장 못산다는 인식이 증가
- 시 단위로는 라선이 가장 잘 살고 사리원이 가장 못 산다고 인식
 - 국경지역의 개방 거점 도시(라선, 신의주 등)들이 잘 산다고 지적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 발표 2

주민생활과 정보화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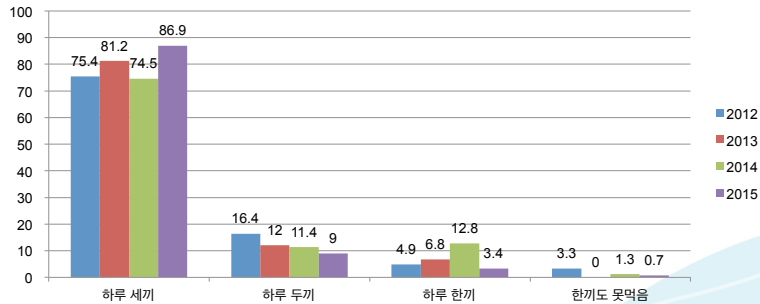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I. 북한 주민의 의식주와 소비생활

1. 식생활 (식사 횟수, 주식 구성, 고기 섭취 횟수)
2. 의생활 (의복 구매 횟수, 의복 원산지, 구입 경로)
3. 주생활 (주택 형태, 주택 마련 경로, 주택 개조)
4. 남한 물건 이용 경험 실태
5.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하루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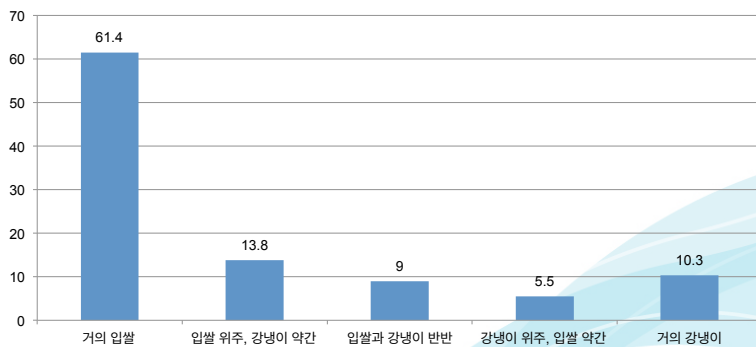
- 전년 대비 농림어업 생산 증가율은 크지 않으나 식생활의 양적 개선은 크게 진전됨
- 계층 간 식사량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하루 세 끼 식사 응답률 상층 90.3%, 중층 86.7%, 하층 62.5%)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2015.7.7)에 의하면, 농림어업 분야 성장률 2011년 5.3%, 2012년 3.9%, 2013년 1.9%, 2014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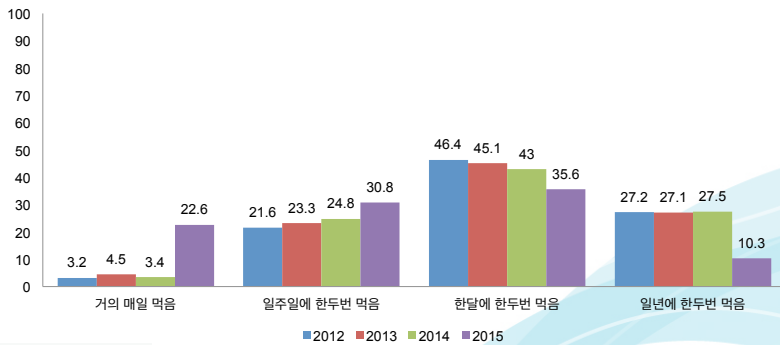
주식의 구성

- 식생활의 질 역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됨
-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응답률은 증가 추세(2012년 35.7%, 2013년 36.8%, 2014년 41.5%, 2015년 61.4%)
- 반면,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 응답률은 감소 추세(2012년 26.2%, 2013년 22.6%, 2014년 29.9%, 2015년 10.3%)
- 계층 양극화 뚜렷(입쌀 식사 응답률 상층 100%, 중층 66%, 하층 29%)



고기의 섭취 횟수

- 고기 섭취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를 섭취함
(반면에, 전년에는 북한주민 절반이 한 달에 한두 번 고기 섭취함)
- 한국은행의 자료, 2014년 축산업 생산 양돈 중심으로 크게 증가
- 식생활 항목 중 계층 간 격차 가장 큼(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 섭취 응답률 상층 84.8%, 중층 42.2%, 하층 6.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탈북 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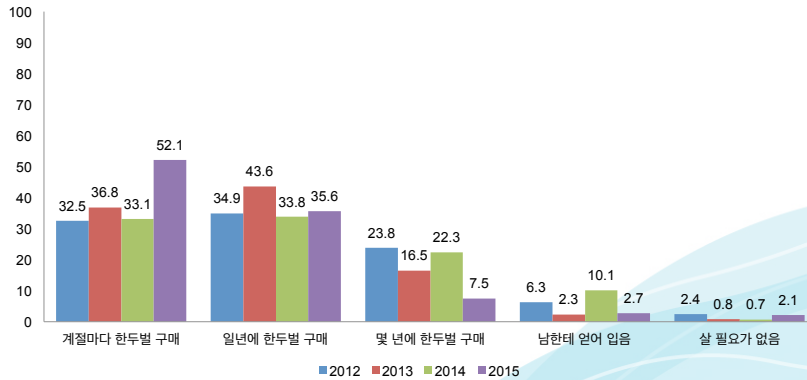
- 2015년 조사에 추가된 설문 문항
-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는 식생활의 양적 문제가 없음
- 식생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 섭취한 응답률은 계층간 격차가 큼(상층 85.7%, 중층 44%, 하층 6.5%)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합계
58(40%)	60(41.4%)	25(17.2%)	2(1.4%)	145(10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의류의 구매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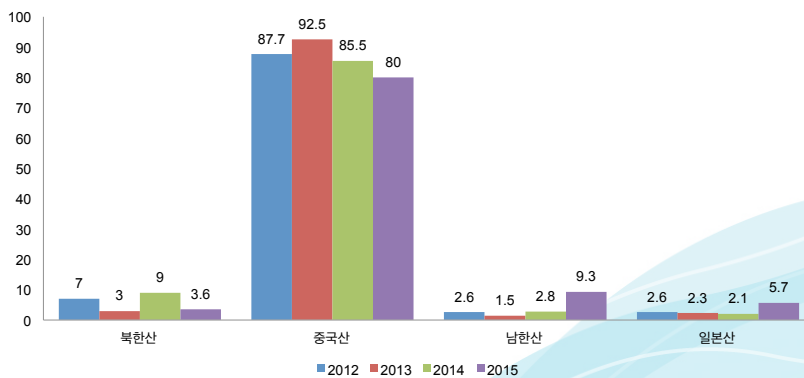
-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률 전년 대비 19% 증가,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자료, 경공업 중 섬유, 의복, 신발 생산 전년대비 1.5%증가
- 의류 구매 횟수도 계층간 격차 큼(계절마다 한두 벌 구입 응답률 상층 81.8%, 중층 47.7%, 하층 1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의류의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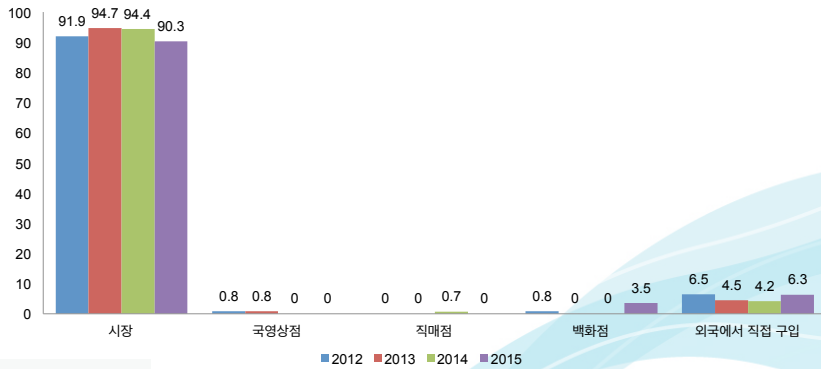
- 중국산 의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전년 대비 남한산과 일본산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값이 비싼 남한산과 일본산 의류의 소비 증가함
- 상층의 경우 북한산 0%, 남한산 10.3%, 일본산 13.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의류의 구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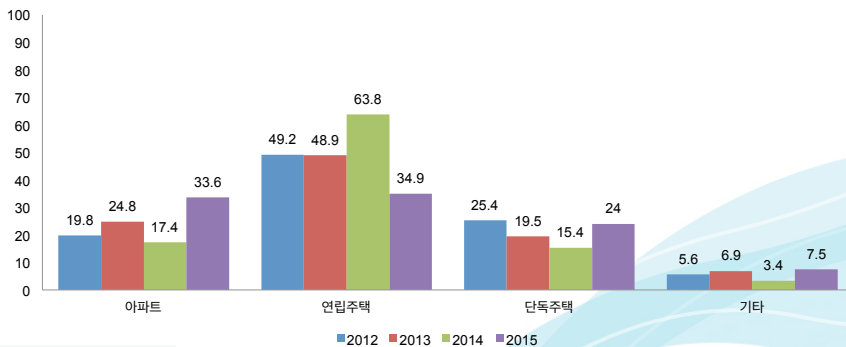
- 시장의존도 절대적이거나 유통 체계의 계층화 나타남
- 시장(장마당) 비중 줄어들고, 백화점, 해외 직접 구입 비중 늘어남
- 과거 사회주의 상업망이었던 국영상점이나 직매점은 사실상 붕괴
- 상층의 경우 백화점 및 해외 직접 구입 응답률 높음(6.3%, 15.6%). 하층일수록 시장이용률 높고, 상층일수록 시장이용률 낮음(하층 94.9%, 상층 78.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살림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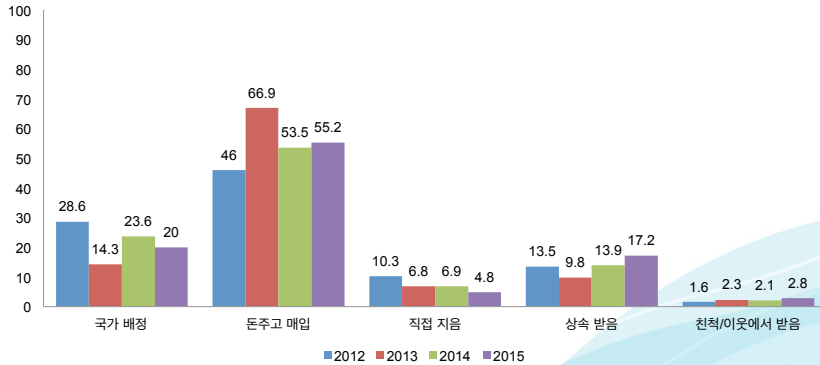
- 전년대비 아파트 거주자와 단독주택 거주자 크게 증가 (전년대비 각각 16.2%, 8.6% 증가)
- 계층별 살림집 형태 확연히 구분(아파트-상층 45.5%, 중층 25.4%, 하층 16.6%, 연립주택-상층 9%, 중층 48.6%, 하층 63.8%)
- 상층의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음(39.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살림집 장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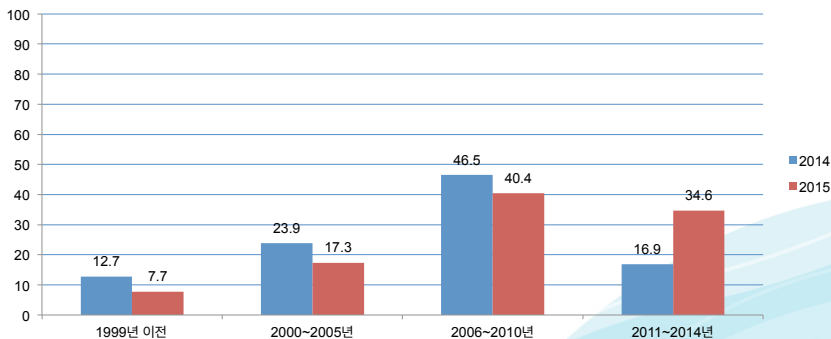
- 돈을 주고 살림집을 샀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이상임. 주택 매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에 거주했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살림집 매입 시기

- 살림집 매입 시기는 2011년 이후라는 응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17.7% 증가)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시기는 2006년~2010년 기간임. 전년조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 매매 활동은 2005년 이후에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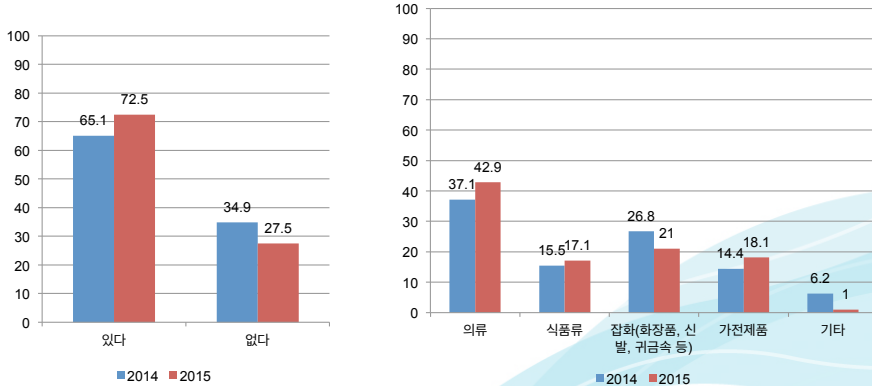
- 집의 크기나 방의 수 늘리고 싶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인테리어 변경 응답은 크게 감소함
- 화장실 개조 희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함

단위:%

	2012	2013	2014	2015
집 크기/방 수 늘림	34.4	34.6	25.2	36.8
인테리어 변경	32.8	19.5	36.7	22.2
위생실 개조	14.8	15	13.7	18.8
난방/취사방식 변경	3.3	7.5	5	4.9
수도시설 개조	8.2	6	7.9	5.6
생각해본 적 없음	6.6	17.3	11.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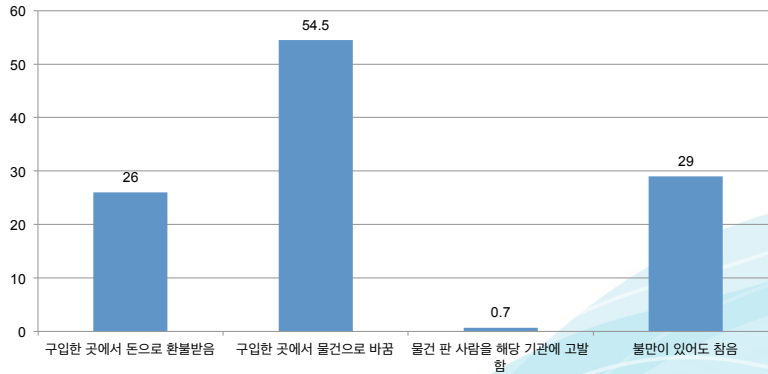
남한 물건 이용 경험 실태

- 북한에서 남한 물건 사용한 경험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 가장 많이 사용해 본 품목 의류>잡화>가전제품 순서임
- 계층간 격차 뚜렷(경험 有 응답률 상층 88.2%, 중층 76.8%, 하층 44.9%)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 구입한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한 곳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환불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26%에 불과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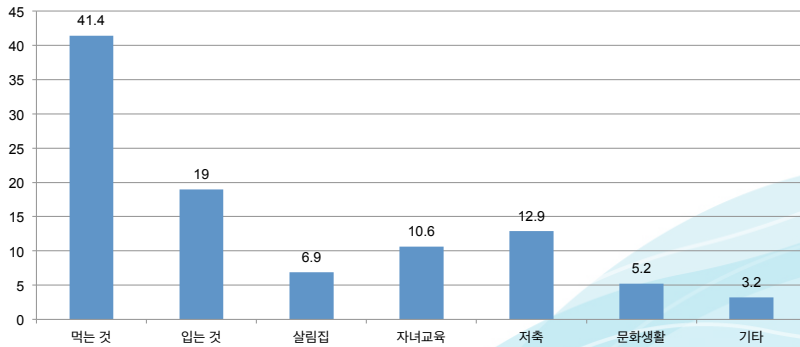
II. 북한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1. 가계소득의 지출 구조
2. 자녀 사교육 실태
3. 일상의 고민
4. 가족 의사결정 구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가계 소득의 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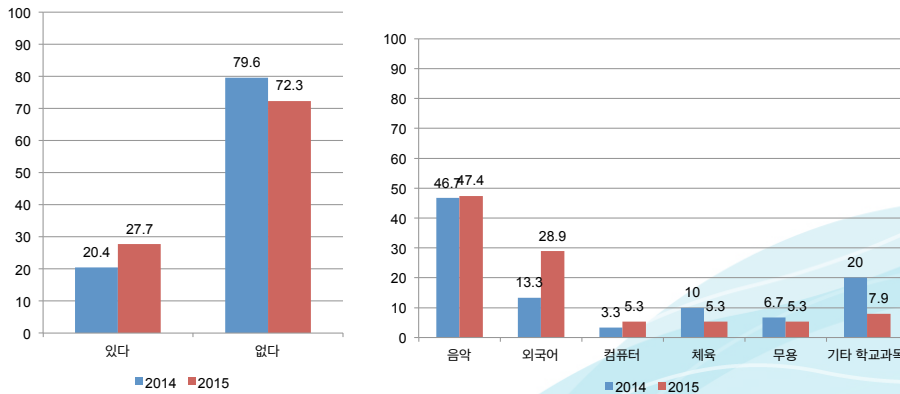
- 월평균 소득 중에서 '먹을 것'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함(평균41.4%)
- 다음으로, 의복>저축>자녀교육 순서로 지출을 많이 함
- 북한 주민의 가계 교육비 비중은 남한 주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2014년 남한의 가계 교육비 비중 11.4%)
- 북한 주민의 가계 저축률은 남한 주민보다 높은 편임(2014년 남한의 가계저축률 2.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자녀 사교육 실태

- 북한에서 자녀 개인강습 경험 '있다'는 응답자 전년 대비 증가(7.3%↑)
- 개인강습 대상 중 외국어 비중 전년 대비 크게 증가(15.6%↑)
- 계층간 사교육 격차 큼(경험 有 응답률 상층 62.5%, 중층 23.7%, 하층 17.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일상의 고민거리

- 돈벌이와 각종 단속이 일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단속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 각종 단속과 조직생활에 대한 고민이 전년 대비 증가함. 두 항목은 사적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조직생활이 제약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구분	2012	2013	2014	2015
돈벌이	59.5	49.6	53.5	47.6
뇌물제공	0.8	3.8	4.2	2.1
각종 단속	23.1	30.1	29.6	32.4
조직생활	6.6	6.8	4.2	8.3
출세	2.5	4.5	2.8	4.1
자녀교육	5	3	4.9	4.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가족의 의사결정구조

-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내 여성(부인)의 의사결정 권한의 비중도 높아짐
- 통계적으로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거주지역 변수와 크게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함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함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함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함
41(29.7%)	27(19.6%)	39(28.3%)	31(22.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II. 북한 사회의 정보화

1. 정보통신 이용 실태
2. 남한 정보 인식 수준
3. 외부정보 유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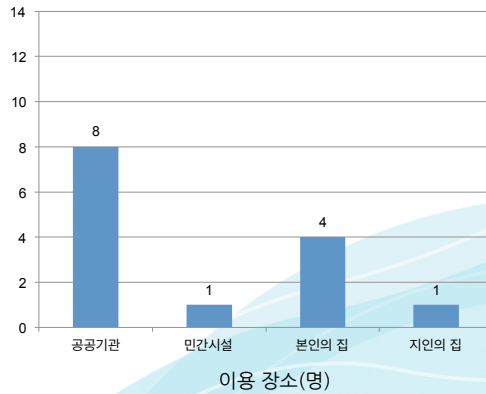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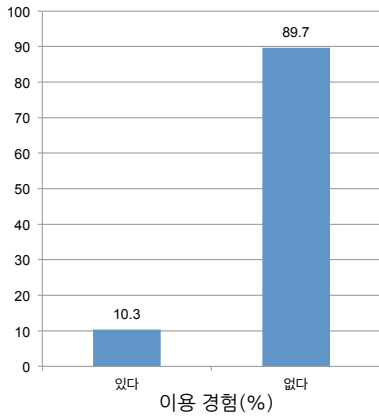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실태

-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휴대폰(손전화) 소유하여 이용한 경험이 있음(V OA의 최근 자료, 고려링크 가입자 수 2백만 명 주장에 비해 훨씬 높은 이용률, 비공식 등록 이용자 수 상당수 존재)
- 녹화기, DVD플레이어, 노트북 등 영상기기 보급률 높음(북한 주민의 한류 경험 높은 것과 관련 있음)
-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낮음(사이버 의사소통 발달에 지장)
- 평양 거주 응답자 전원은 집전화, 손전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 반면, 황해도 거주 응답자 가장 낮은 보유율과 이용률을 보임

종류	집전화	손전화	컴퓨터	노트텔	녹화기	DVD 플레이어
응답률	47.3	55.5	27.4	41.8	66.4	45.2

인트라넷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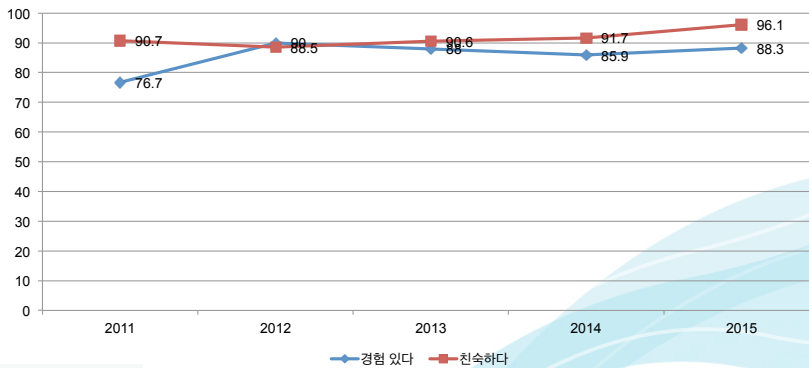
- 북한 거주시 인트라넷(내부 인터넷 망) 이용 경험 거의 없음.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이용한 경험 있음
- 인트라넷 이용 장소는 대부분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등)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 문화 콘텐츠 경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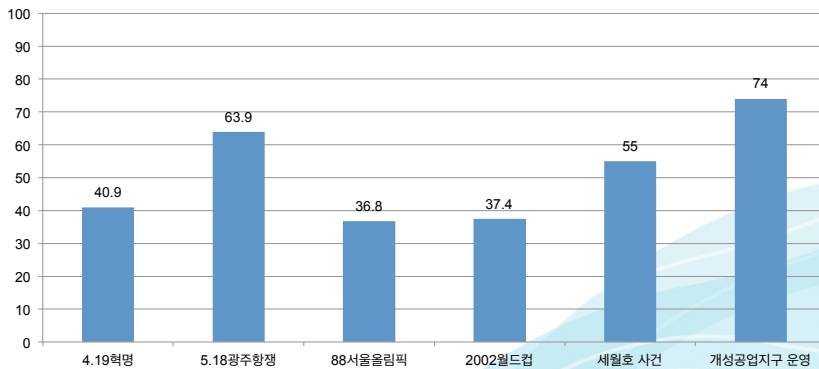
- 북한 거주 시 남한 문화 콘텐츠(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 등) 경험 실태 5년 평균 응답률 86%로 높은 수준임
- 경험한 남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친숙도 5년 평균 응답률 91.6%로 매우 높은 수준임
-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 수준 높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 소식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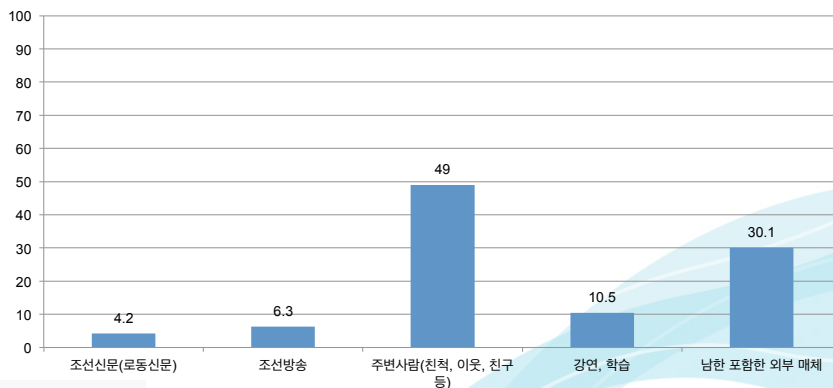
-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북한 거주 시 남한의 세월호 사건 소식 알고 있었음
-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높고, 역사적 사건으로는 5.18광주항쟁에 대한 인지 수준 높음
- 세월호 사건의 경우 외화별이>전문가>학생 순서로 인지수준 높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외부 정보의 습득 경로

- 북한의 공식 매체보다는 구전(口傳)이나 남한을 포함한 외부 매체(방송, 통신, 뼈라 등)를 통해 외부 소식 주로 접함
- 외부 정보 습득을 위한 북한의 공식 매체 활용도는 매우 낮음
- 대학교 응답자의 경우 외부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요약 및 결론(I)

1. 북한 주민의 의식주와 소비생활

-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양적 차원보다는 질적 차원에서 계층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주식보다는 부식에서의 격차가 커짐
 - 하루 식사 횟수, 주식에서 쌀의 비중, 고기섭취 횟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됨. 하지만 상층과 하층 간의 격차가 매우 큼
- 의생활의 경우, 구매 횟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계층간 격차는 매우 큼. 소득 향상으로 옷의 원산지 및 구입 경로는 다변화됨
 - 중국산 비중 줄어들고, 남한산과 일본산 비중 증가함. 또한 백화점이나 해외 직접 구입 비중도 전년대비 증가함
- 아파트 거주자와 단독주택 거주자 크게 증가함. 계층별 살림집 유형 구분 뚜렷하게 나타남.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자기 돈 주고 집을 마련
 - 상층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 비율 높고, 하층은 연립주택 거주율이 압도적임. 살림집의 사적 매입뿐 아니라 상속 비율도 꾸준히 증가함

요약 및 결론(II)

- 북한 거주시 남한 물건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계층간 격차 뚜렷함
 - 의류>잡화>가전제품 순서로 사용 경험 많음. 상층의 경험률은 하층보다 두 배 높음
- 소비자로서 비교적 능동적인 행동 나타남
 - 10명 중 5명 이상은 상품 교환의 경험 있음

2. 북한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 월평균 가계소득 중에서 식비 지출이 가장 많음. 하지만 저축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지출 비율도 비교적 높음 편임
 - 북한 주민의 가계교육비는 남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가계저축률은 남한보다 높은 편임
- 자녀 사교육 경험 전년 대비 증가, 외국어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계층간 사교육 격차 큼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내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비중 높음

요약 및 결론(III)

3. 북한사회의 정보화

- **정보통신기기 중 녹화기와 손전화기(휴대폰) 보유 및 이용률 높음**
 - 영상기기 보유율이 높아 외부 문화 콘텐츠 경험 및 보급과 연관
 - 컴퓨터의 보유 및 이용률은 낮고, 정보망 연결 수준 낮음
 - 평양과 내륙(특히, 황해도)간 정보화 격차 크게 나타남
- **북한 거주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남한 문화콘텐츠 경험 있음**
 -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 수준 높음
- **남한의 최근 소식에 대한 인지 수준 높은 편임**
 - 개성공단 운영 인지도 가장 높고, 10명중 5명 이상은 세월호 소식 알고 있었음. 외국 활동 많거나 전문직일수록 인지도 높음
- **외부정보는 공식매체보다는 구전이나 외국 매체를 통해 습득함**
 -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보다, 주변인들에게서 또는 남한을 포함한 외국 매체를 통해 주로 습득함
 - 최근 재개된 군의 대북방송 등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부담감 커질 전망

요약 및 결론(IV)

4. 정책적 시사점

-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대북정책이나 대북 협상에서 주요 의제 변화 필요**
 - 기존에 남북협상에서 주로 지렛대로 이용했던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및 비료지원 등의 효과가 감소함
 -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 특구 또는 대규모의 산업 투자에 남한이 참여하는 것에 더 매력을 가질 수 있음
- **재북 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지위 및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임. 오히려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이 하향되어 불만이 높아 정착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기근 탈피 또는 생계 문제라기보다 더 나은 삶의 추구일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기준점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감사합니다!

2015 북한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요약)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 주민의 의식주와 소비생활

- 식생활은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함. 그러나 계층 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짐
 - 농림어업 생산 증가 전년 대비 크지 않았으나 식생활의 양적·질적 향상 모두 나타남
 - 북한 거주시 하루 세끼 식사했다는 응답률 86.9%, 거의 쌀밥을 먹었다는 응답률 61.4%로 나타남(2014년 조사, 각각 74.5%, 41.5%)
 -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를 섭취함(2014년 28.2%, 2015년 53.4%)
 - 탈북 직전 1년간 식생활 형편은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식생활의 양적 문제 없었음.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40%에 불과
 - 계층 간 식생활 격차 크게 나타남. 쌀밥 식사 응답률 상층 100%, 중층 66%, 하층 29%,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 섭취 응답률 상층 84.8%, 중층 42.2%, 하층 6.8%

- 의생활의 경우, 의류 구매 횟수 전년 대비 크게 증가, 계층 간 격차 뚜렷하게 나타남
 -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률 전년 대비 19% 증가. 응답자 10명중 5명 이상은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매함
 - 그러나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률 상층 81.8%, 중층 47.7%, 하층 11.2%
 - 의류의 원산지 및 구입처가 다변화되고 있음. 소득향상으로 전년 대비 남한산과 일본산 의류 구매자 증가하고, 백화점이나 해외 직접 구입 비중 늘어남

- 상층의 경우 주로 남한산과 일본산 의류를 입고, 백화점이나 해외 직접 구입 응답률 높음
- 주거생활은 전년 대비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자 크게 증가함. 계층별 살림집 유형 뚜렷하게 구분됨
 - 상층의 경우 아파트(45.5%)와 단독주택(39.4%) 비율 높음. 반면에 하층의 경우는 연립주택의 거주 비율(63.8%)이 높음
 -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돈을 주고 살림집을 마련했다고 응답함(55.2%). 부모에게서 상속받았다는 응답률도 계속 증가 추세임(17.2%)
 - 살림집 매입 시기는 2011년 이후라는 응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2014년 조사 16.9%, 2015년 조사 34.6%)
- 북한 거주시 남한 물건 이용 경험 있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증가(2014년 조사 10명중 6명)
 - 가장 많이 사용해 본 품목은 의류(42.9%)>잡화(21%)>가전제품(18.1%) 순서임
 -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경험 있다는 응답률 상층 88.2%, 중층 76.8%, 하층 44.9%)
- 북한의 소비자 비교적 능동적 행동 보임
 - 구입한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경험 있음.(환불 26%, 교환 54.5%)

2. 북한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 월평균 가계소득 중에서 식비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평균 41.4%)
 - 북한 주민의 가계교육비는 남한 주민의 가계교육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북한 10.6%, 남한 11.4%)
 - 북한 주민의 가계저축률은 남한 주민의 가계저축률보다 더 높음(북한 12.9%, 남한 2.9%)

- 자녀 사교육 경험 전년 대비 증가하고, 외국어 비중 크게 증가, 계층간 격차 큼
 - 자녀 개인강습 경험 있다는 응답률 27.7%(2014년 20.4%)
 - 개인강습 대상은 음악(47.4%)>외국어(28.9%)>기타 학교과목 순서로 비중 높으나, 외국어 비중의 증가폭이 가장 높음(2014년 13.3%, 2015년 28.9%)
 - 개인강습 경험 있다는 응답률 상층 62.5%, 중층 23.7%, 하층 17.1%
- 일상의 고민 중에서 돈벌이와 각종 단속을 피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 돈벌이 47.6%, 각종 단속 32.4%, 조직생활 8.3%, 뇌물 제공 2.1%, 출세 4.1%, 자녀교육 4.8%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내 의사결정 시 여성의 발언권 높아짐
 -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률 29.7%,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률 28.3%,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률 22.5%

3. 북한 사회의 정보화

- 정보통신기기 중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휴대폰(손전화)와 녹화기 보유, 컴퓨터 보유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직접 소유하여 이용한 경험률 집전화 47.3%, 손전화 55.5%, 컴퓨터 27.4%, 노트북 41.8%, 녹화기 66.4%, DVD플레이어 45.2%
 - 영상기기 보급률 높은 편임.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 콘텐츠 경험과도 관련성 높음
 -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낮고, 정보망 발달은 미미한 수준임(인트라넷 이용 경험 비율 10.3%에 불과)
 - 평양 거주 응답자 전원은 집전화, 손전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황해도와 같이 농촌 중심 지역의 경우 정보통신기기 보급률 매우 낮음
- 북한 거주시 남한 문화 콘텐츠(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 등) 경험 및 친숙도 매우 높은 수준
 - 남한 문화 콘텐츠 향유 경험 있다는 응답률 5년 평균 86%, 친숙했다는 응답률 5년 평균 91.6%로 나타남

-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 수준이 높음
- 남한의 최근 소식에 대한 인지도 높음
 -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북한 거주 시 남한의 세월호 사건 소식을 알고 있었음(55%)
 -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74%). 역사적 사건으로는 5.18광주항쟁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음(63.9%)
 - 세월호 사건의 경우 외화별이>전문가>학생 순서로 인지 수준 높음
- 외부의 정보 습득 경로는 북한의 공식 매체보다는 주변인이나 남한 포함한 외국 매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외부 정보 습득 경로 북한의 신문과 방송 비중 10.5%에 불과, 반면에 주변 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49%, 남한 포함한 외국 매체(30.1%)

4. 정책적 시사점

-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대북정책이나 남북협상에서 주요 의제가 달라질 필요 있음
 - 기존에 남북협상에서 주로 지렛대로 이용했던 인도적 지원이나 식량 및 비료지원의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대신,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 특구 또는 대규모의 산업 투자에 남한이 참여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경제적 지위 및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임. 오히려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이 하향되어 불만이 높아 정착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기근 탈피 또는 생계 문제라기보다 더 나은 삶의 추구일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기준점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 발표 3

주민의 유동성 · 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주민의 유동성 · 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목 차

1. 자유화란?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증가
3. 비판적 정치의식 상승
4. 자유화(Liberalization)의 진전과 사회통제 강화

1. 자유화란?

- ▶ 자유화(Liberalization)란?
- ▶ 국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
- ▶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이 높아지고 비판적 정치 의식이 고조되는 현상으로 평가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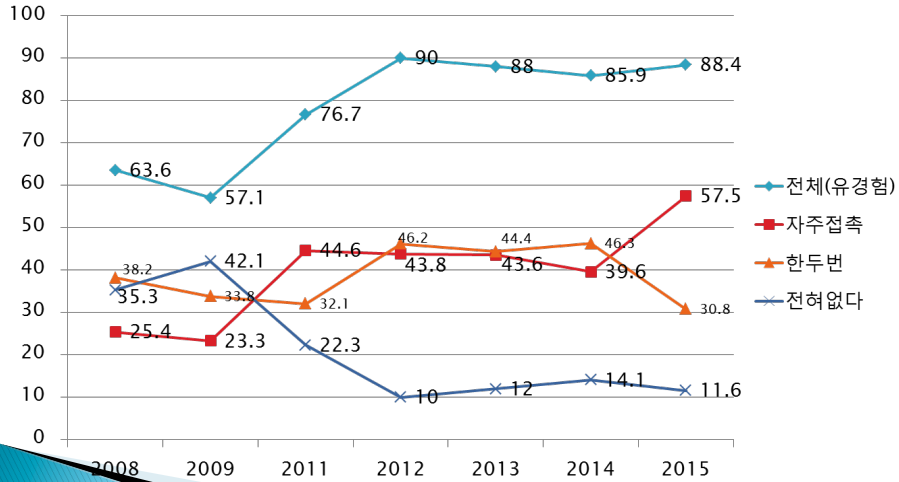
(1) 정보화·문화개방과 탈북 유동성

-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사회통제의 강화로 국내입국 탈북자 수가 줄고 있지만, 탈북자의 '손전화'(핸드폰) 소유 사용률은 65.5%로 북한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10%(250만 대)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
- ▶ 이동통신의 사용과 탈북 유동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1) 정보화·문화개방과 탈북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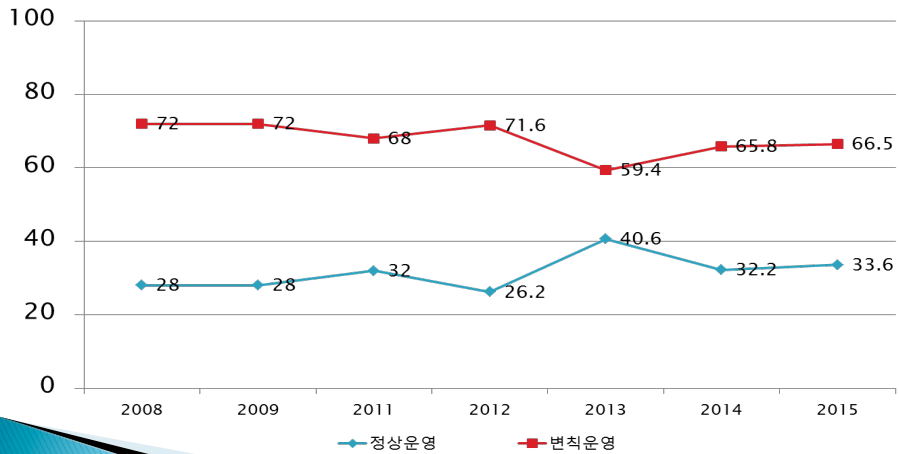
한류(남한방송/드라마/음악) 접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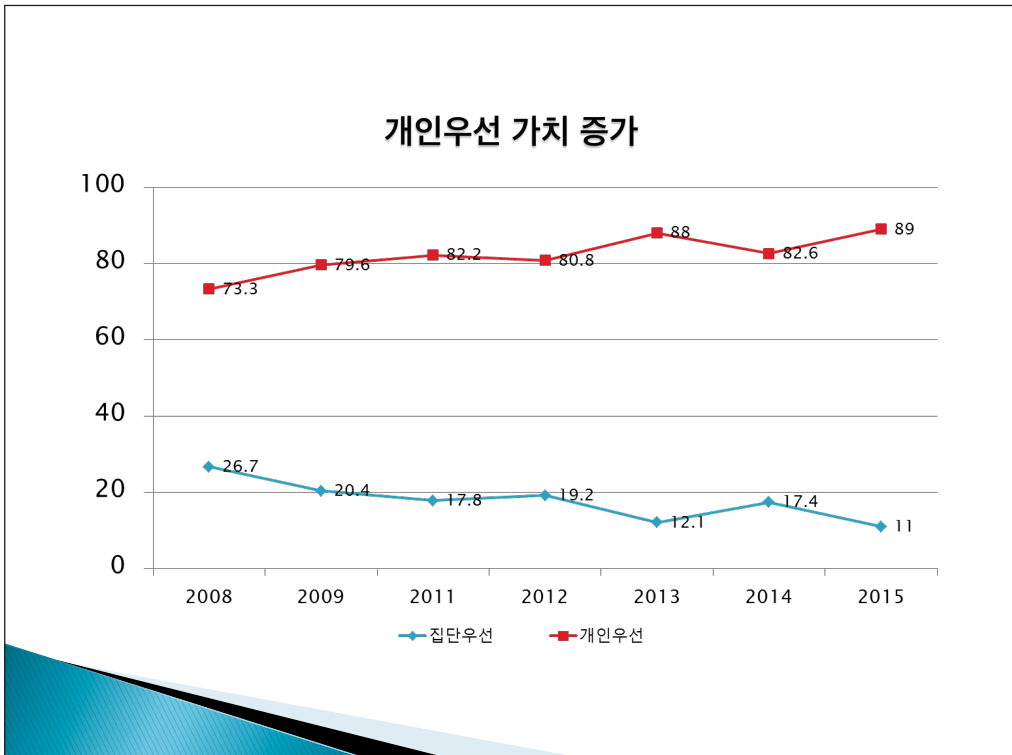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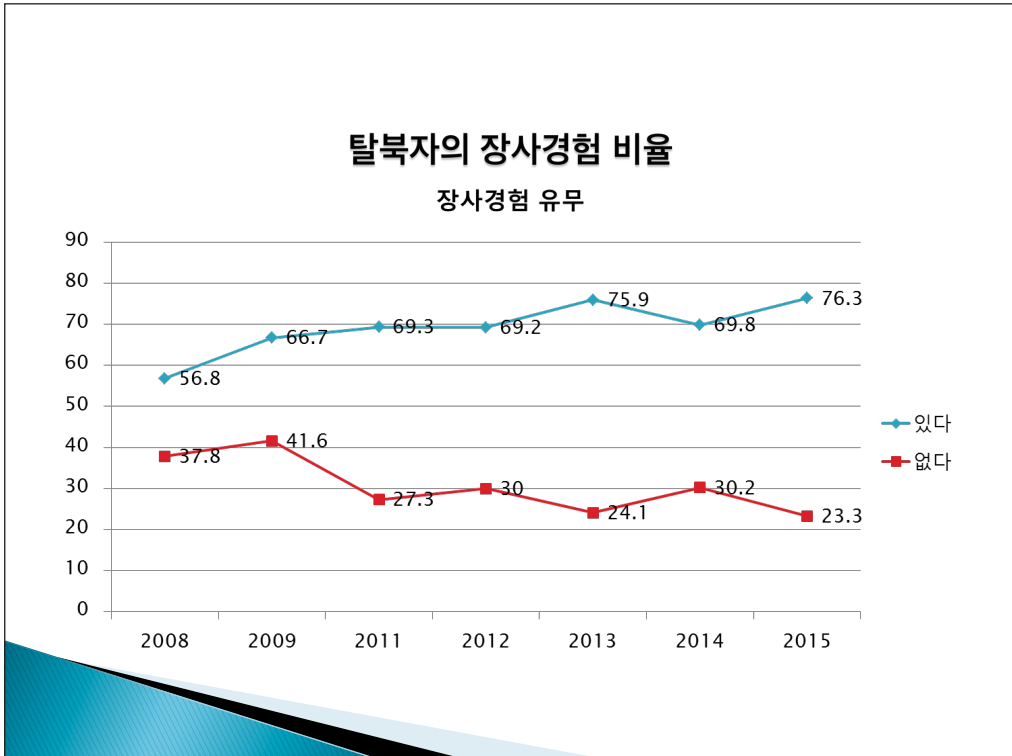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2) 주민의 사적 공간 증대

직장 내 생산규율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3) 지리적 이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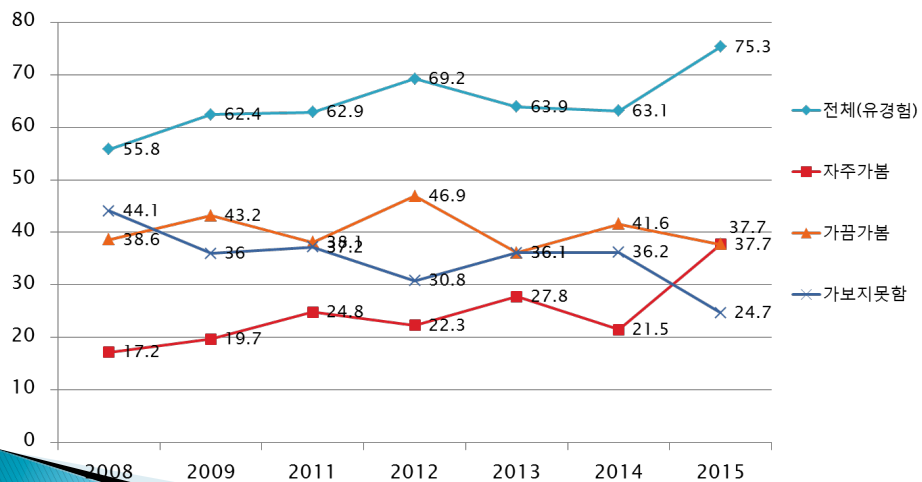
▶ 장거리 버스



7월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군인들이 평양으로 출어가는 일색에서 초소 근무를 감당하고 있다. (자료:사간)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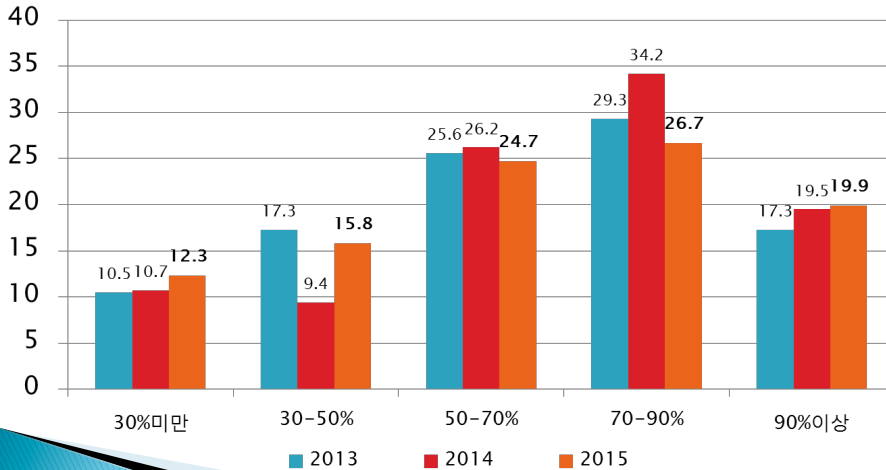
(3) 지리적 이동 증가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3) 지리적 이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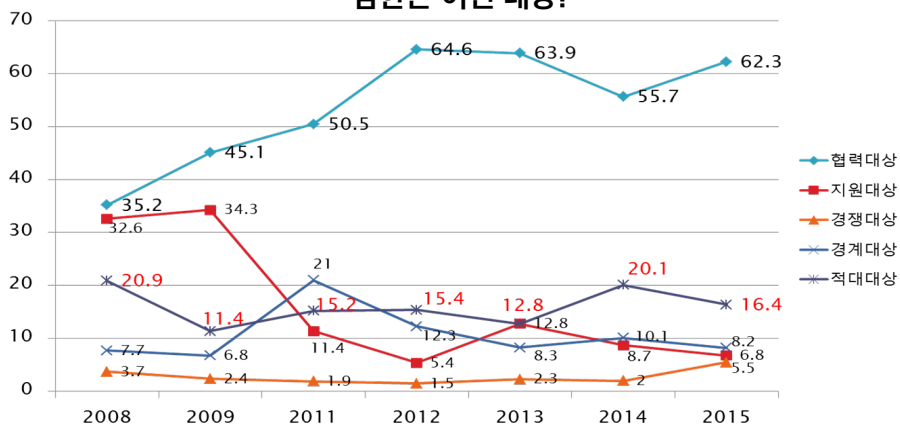
총화출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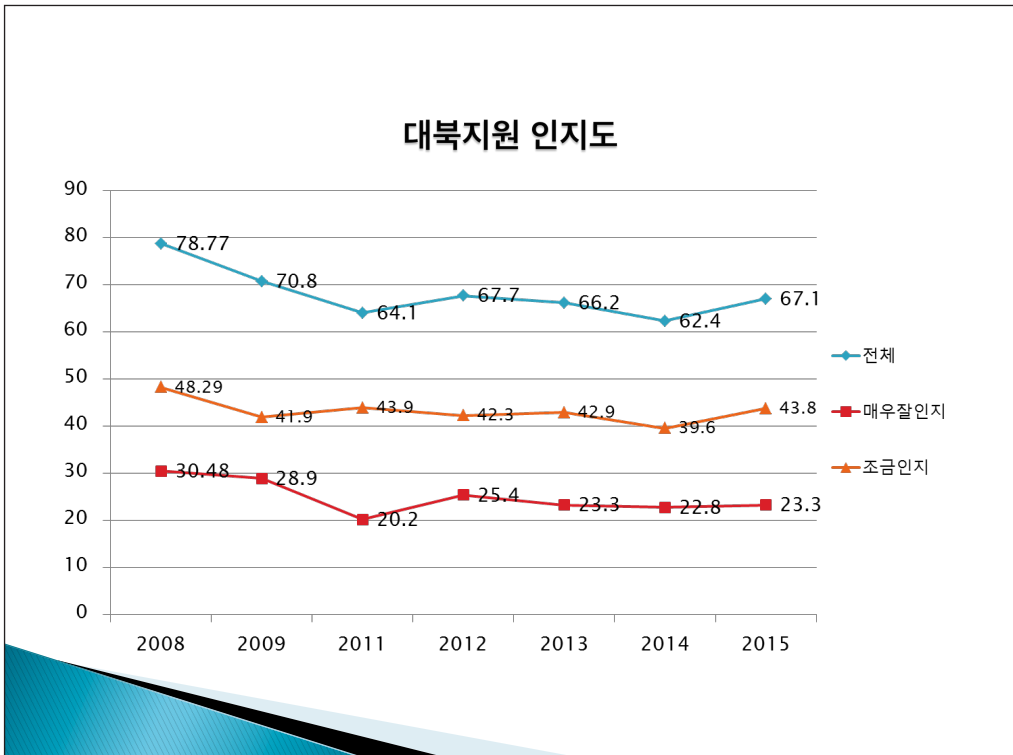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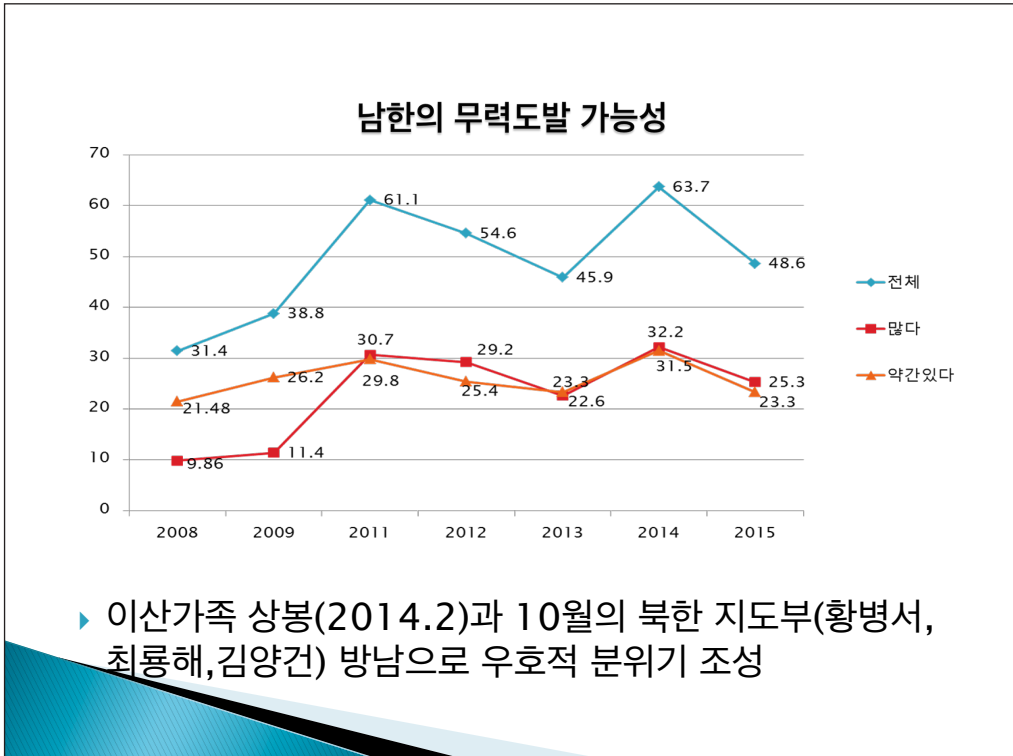
3. 비판적 정치의식 상승

(1) 대남인식 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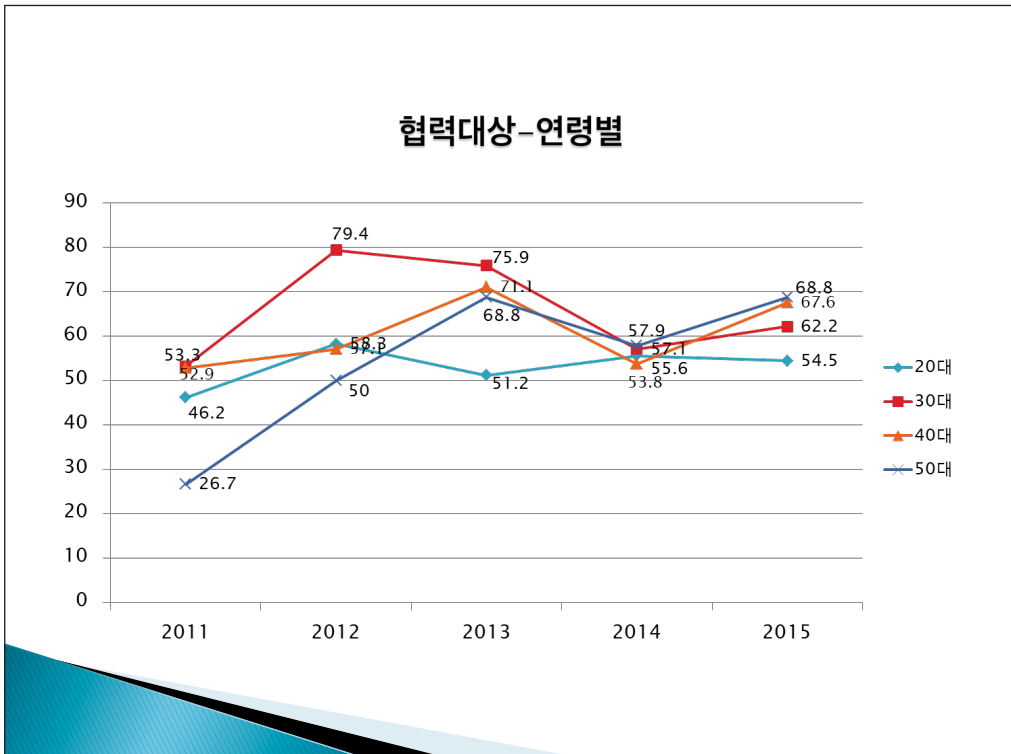
남한은 어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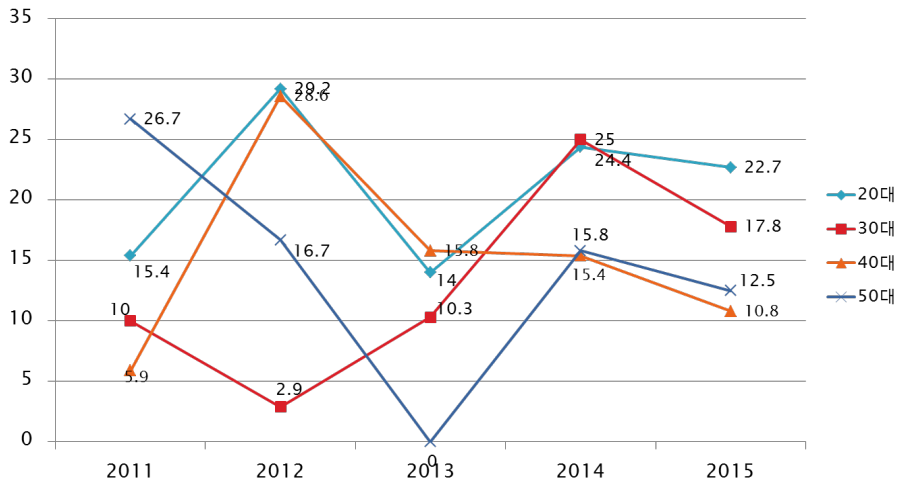
대남 적대대상 인식 완화, 협력대상 인식 강화.
 지난 1년 동안 이전 해의 초긴장 국면을 벗어났음을 의미



- ▶ 2014년의 안보위기가 심각했지만 핵실험과 전쟁불사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작용
- ▶ 이산가족 상봉(2014년 2월)과 2014년 10월 북한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등으로 남북관계가 소폭 개선됨으로써 북한 주민이 대북지원 및 남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늘었기 때문



적대대상-연령별



연령별 대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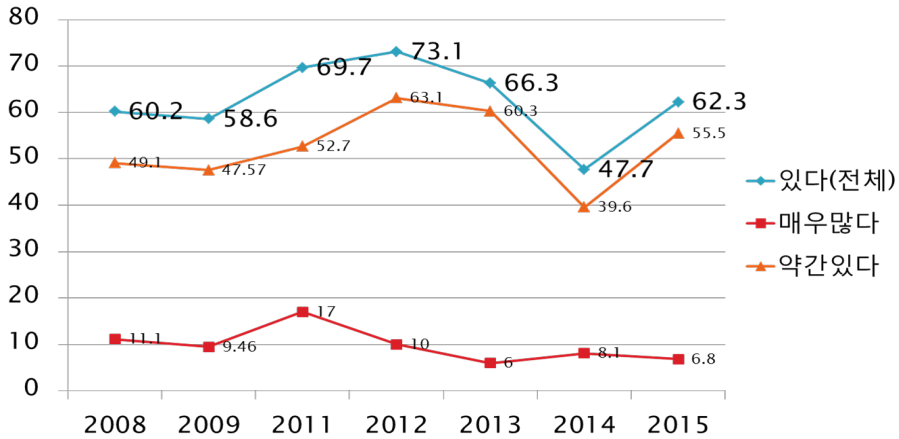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협력대상	54.7	61.7	67.1	61.5	51.6
적대대상	19.2	17.5	12.0	16.7	12.9

$\chi^2=40.951, p=0.054$

- ▶ 2011-2015 전체 660명 샘플에서는 연령별 대남인식의 차이 발견
- ▶ 40대의 대남 협력인식 가장 높고, 적대의식 가장 낮음

3. 비판적 정치의식 상승

(2) 정부비판행위(낙서, 삐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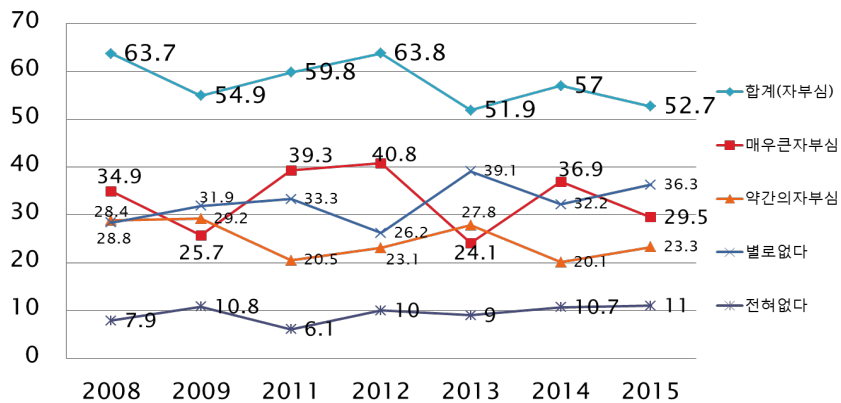


▶ 그러나 '매우 많다'는 평가는 8.1%→6.8%로 큰 변화 없어 신중한 판단 필요

3. 비판적 정치의식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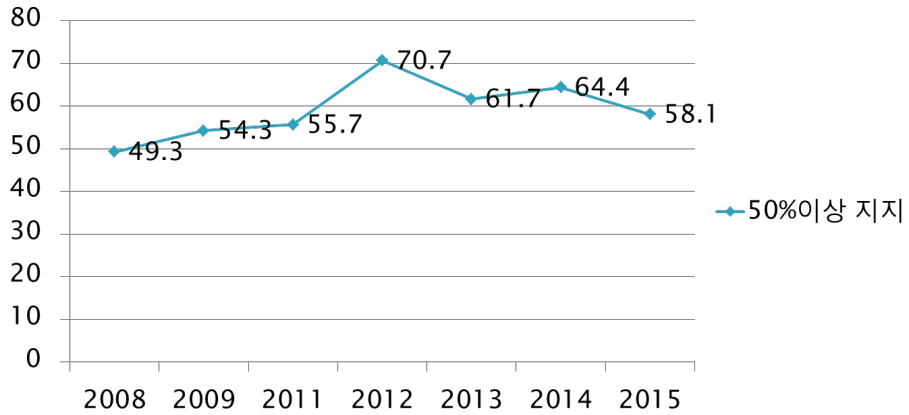
(3) 정치의식 약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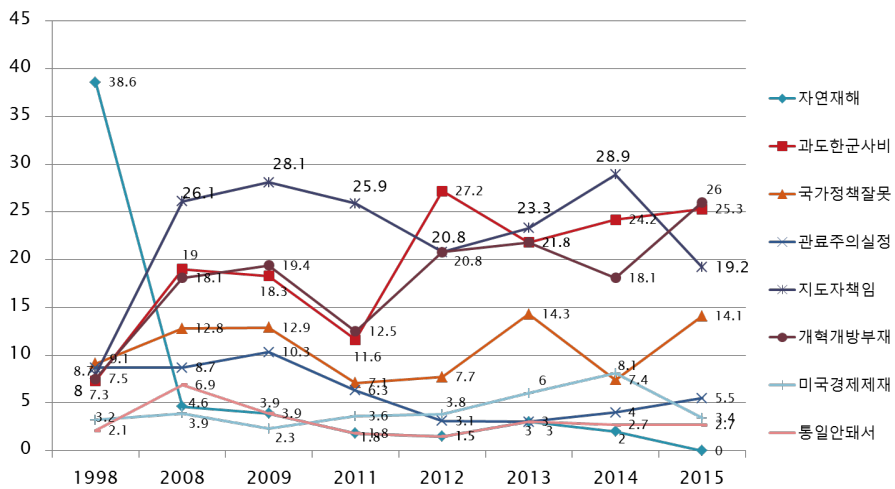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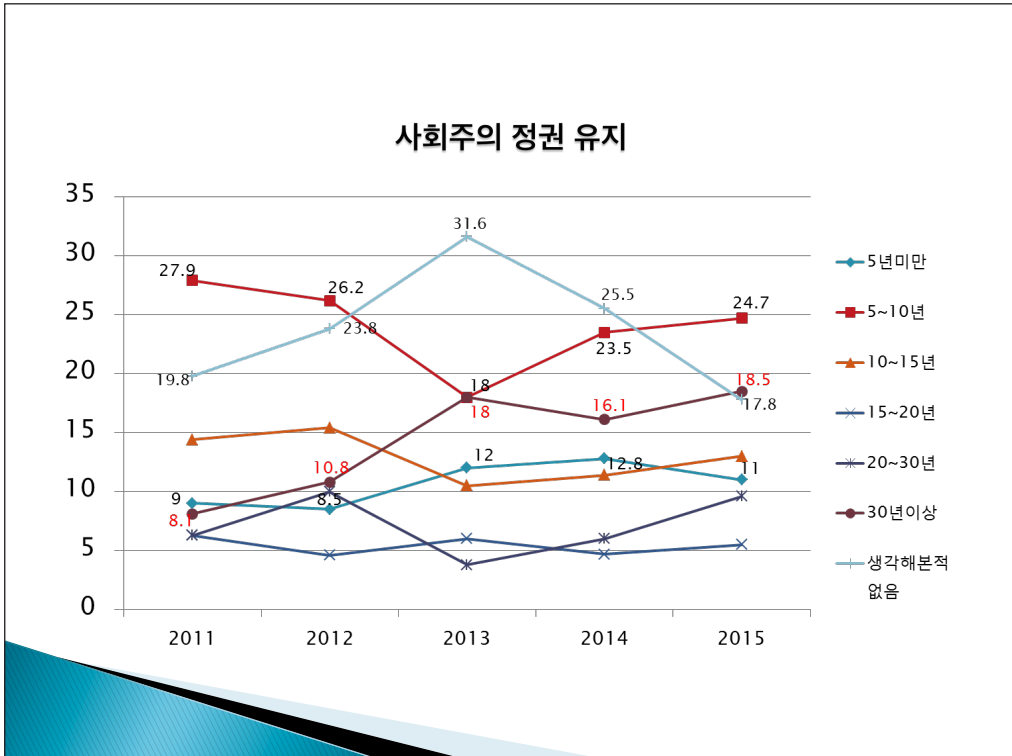
김정일-김정은 지지도

50%이상지지



경제침체 원인





- ▶ 2015년 정치의식과 연령, 소득수준, 성별, 당원여부 등의 변수와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 주체사상 자부심($\chi^2=15.5$, $p=0.213$), 김정은 지지도($\chi^2=48.7$, $p=0.077$) 등으로 연령 등의 변수보다는 소득수준과의 관련성이 높음.

- ▶ 그러나 2011~2015년 전체샘플(6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체사상 자부심과 연령: $\chi^2=36.9$, $p=0.017$
 - 김정은 지지도와 연령: $\chi^2=79.4$, $p=0.021$.
- ▶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지도자나 대정부 비판행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p=0.003$).
 - 평안남도가 가장 높고,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의 거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있었다고 응답했고, 평양, 강원도, 황해북도 등 내륙지방 거주자들은 없다는 응답 높음.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59.0	56.1	53.5	60.5	62.5
없다	41.0	43.9	46.5	39.7	37.5

$\chi^2=36.858$, $p=0.017$

- ▶ ‘고난의 행군’ 시기 20대 청년시기를 보냈던 현재의 40대는 주체사상 자부심이 가장 낮음.

연령별 김정일·김정은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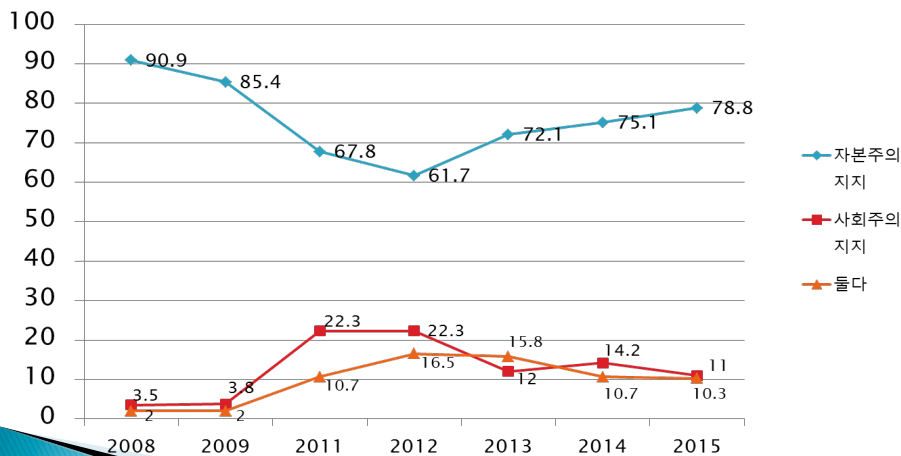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지율	71.2	66.2	55.3	59.8	60.2

$\chi^2=79.419, p=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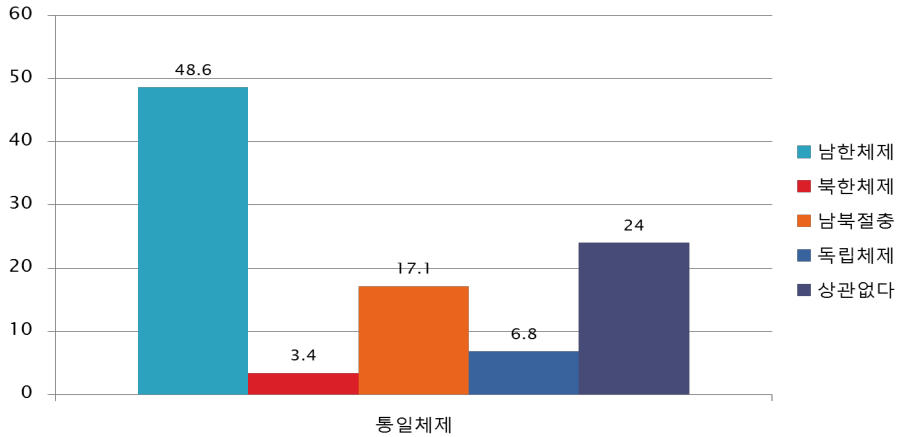
- ▶ ‘고난의 행군’ 시기 20대 청년시절을 보낸 현재 40대의 지지도가 가장 낮고 ‘고난의 행군’ 시기 유년 및 청소년 시기를 보낸 현재의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도가 높음.
- ▶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사회통제가 회복되었을 가능성, 혹은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

3. 비판적 정치의식 상승

(4) 자본주의 경제체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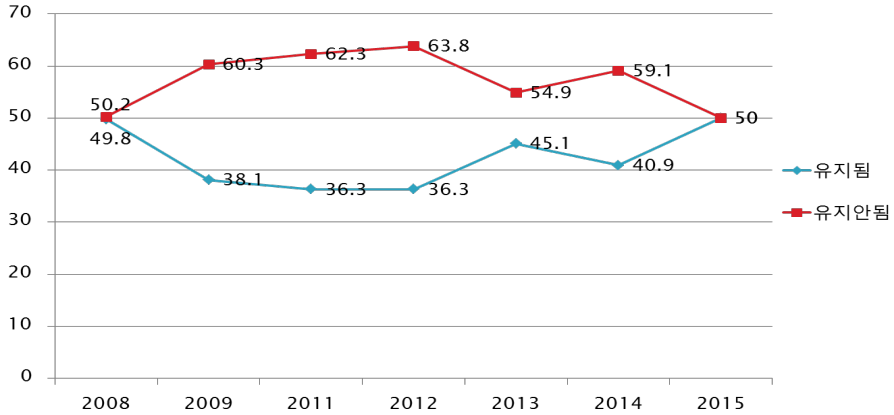
통일방식과 체제 2015



4. 자유화(Liberalization)의 진전과 사회통제 강화

- ▶ 최근 1년 동안 주민유동성 증대와 정치의식 약화로 국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 자유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음.
- ▶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의 진전이 국가적 사회통제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율적 활동과 의식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4. 자유화(Liberalization)의 진전과 사회통제 강화



- ▶ 사회통제 유지 -
- ▶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8%에 불과

- ▶ 고난의 행군 시기 20대 청년시기를 보낸 40대는 호의적 대남인식 및 비판적 정치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존 정치·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 이후 세대인 20대와 30대는 아직 비판적 정치의식이 약하여,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주민의 유동성 · 정치의식 변화와 자유화 (요약)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 자유화란?

- 자유화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
- 이런 점에서 자유화는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이 증대하고 비판적 정치의식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평가

2. 주민유동성(Human Mobility) 증가

1) 정보화·문화개방과 탈북 유동성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사회통제 강화로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가 감소했지만, 탈북자의 '손전화'(핸드폰) 소유 · 사용률은 65.5%로 북한의 이동통신 보급률이 10%(250만대)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임. 이동통신의 사용과 탈북 유동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남한 문화 접촉률이 88.4%로 매우 높고 '친숙했다'(매우 59.2%, 약간 32.4%)는 응답도 91.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볼 때 탈북자의 남한 문화 접촉비율은 북한 일반주민의 접촉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남한 문화 접촉이 탈북 유동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남한 물건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5.1%→70.5%로 매우 높은 수준.

2) 주민의 사적 공간 증대

- 직장 내의 생산은 정상운영(33.6%)보다는 변칙운영(66.5%)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66.5%의 주민들은 국가의 정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사적 경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음.
- 탈북자의 장사 경험 비율은 69.8%→76.3%로 2013년(75.9%)의 수준 회복
 - 김정은 정권이 출범했던 2012년에 개인 사업 비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개인 우선의 가치는 82.6%→89.0%로 6.4% 포인트 증가,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 경향이 커지고 있는 추세.

3) 지리적 이동 증가

- 지리적 이동은 63.1%→75.3%로 12.2% 포인트나 급증, 주민유동성이 가파르게 상승.
 - 특히 '자주 가보았다'는 비율이 21.5%→37.7%로 16.2% 포인트 급등, 지역 간 이동 활성화
- 주민유동성은 생활총화 출석률의 저하로 반영되는데, 생활총화 출석 실태는 90% 이상 출석이 17.3%→19.5%→19.9%로 유지되고 있으나, 70~90% 출석이라는 응답은 29.3%→34.2%→26.7%로 다시 하락하여 조직 활동은 부분적으로 이완.

3. 비판적 정치의식 상승

1) 대남인식 호전

- 작년에 증가했던 대남 '적대대상'인식이 완화되고 '협력대상'인식이 강화됨.

-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1년 사이에 55.7%→62.3%로 상승하였으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20.1%→16.4%로 완화, 예년의 수준으로 복귀(협력대상인식: 63.9%→55.7%→62.3%, 적대대상: 12.8%→20.1%→16.4%)
 - 지난 1년 동안 그 이전 해의 초긴장 국면(핵실험과 남북군사대결)에서 벗어났음을 의미
- 작년에 17.8% 포인트 상승했던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인식도 45.9%→63.8%→48.6%로 안보 위기의식이 15.2% 포인트 낮아졌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도 62.4%→67.1%로 4.7% 포인트 상승
- 2014년의 안보위기가 심각했지만 핵실험과 전쟁불사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작용
 - 이산가족 상봉(2014년 2월)과 2014년 10월 북한 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서울방문 등으로 남북관계가 소폭 개선됨으로써 북한 주민이 대북지원 및 남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늘었기 때문
-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에서 세대별 인식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성세대일수록 대남 ‘협력대상’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
- ‘적대대상’인식에서도 20대(22.7%)가 가장 높고, 30대(17.8%), 50대(12.5%), 40대(10.8%) 순으로 확인
 - 2011~2015년 660명 전체 표본에서는 $\chi^2=40.951$, $p=0.054$ 로 유의미성 있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20대 청년 시기를 보낸 40대는 대남협력인식 가장 높고, 적대의식 가장 낮음.
 - 대남 협력대상 인식은 40대(67.1%) > 30대(61.7%) ≒ 50대(61.5%) > 20대(54.7%) > 60대(51.6%)
 - 대남 적대대상 인식은 20대(19.2%) > 30대(17.5%) > 50대(16.7%) > 60대(12.9%) ≒ 40대(12.0%)

2) 정부 비판행위 증가

- 66.2%→47.7%로 대폭 감소했던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빼라 등)”에 대한 평가는 다시 62.3%로 14.6% 포인트 상승
 - 그러나 ‘매우 많다’는 평가는 8.1%→6.8%로 큰 변화가 없고 ‘약간 많다’는 견해가 39.6%→55.5%로 증가한 것임.

3) 정치의식 약화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평가가 57.0%→52.7%로 하락했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도 64.4%→58.1%로 하락.
 - 그러나 북한 경제가 어려운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은 28.9%→19.2%로 9.7% 포인트 감소,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심각한 수준 아님.
 - ‘과도한 군사비’(25.3%)라는 북한 당국의 설득논리가 작동하는 가운데 ‘개혁개방 부재’(18.1%→26%), ‘통일이 안 돼서’(7.4%→14.1%)라는 응답이 급상승, 북한체제의 개혁개방과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열망이 고조
- 북한 정권의 예상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5~10년’(24.7%)이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18.5%), ‘생각해본 적 없다’(17.8%), ‘10~15년’(13%) 순으로 응답, ‘5년 미만’(11%) 등의 단기붕괴 시각보다는 중기 혹은 장기적 시각이 우세.
- 정치의식과 연령, 소득수준, 성별, 당원여부 등의 변수와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주체사상 자부심($\chi^2=15.5$, $p=0.213$), 김정은 지지도($\chi^2=48.7$, $p=0.077$) 등으로 연령 등의 변수보다는 소득수준과의 관련성이 높음.
- 그러나 2011~2015년 전체 표본(6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체사상 자부심은 연령과 유의미한 상관관계($\chi^2=36.858$, $p=0.017$)가 있었고, 김정일·김정은 지지도와도 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chi^2=79.419$, $p=0.021$)가 있었음.

- 즉 1995~2000년 고난의 행군 시기 20대 청년시기를 보냈던 현재 40대는 주체사상 자부심이 가장 낮으며, 김정은 지지도도 가장 낮음.
 - 주체사상 자부심은 60대(62.5%)가 가장 높고, 50대(60.5%) > 20대(59.0%) > 30대(56.1%) > 40대(53.5%) 순임.
 - 김정일 ·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20대(71.2%)에서 가장 높고 30대(66.2%) > 60대(60.2%) > 50대(59.8%) > 40대(55.3%) 순임.
-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지도자나 대정부 비판행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p=0.003$).
- 평안남도가 가장 높고,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의 거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있었다고 응답했고, 평양, 강원도, 황해북도 등 내륙지방거주자들은 없다는 응답 높음.

4) 자본주의 경제체제 선호

- 사회주의 경제(11%)보다 자본주의 경제(78.8%)를 훨씬 많이 지지하고, 통일방식도 북한체제(2%)나 남북절충(21.5%)보다는 남한체제(39.6%)를 더 지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의식이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통일방식 어떤 체제도 '상관없다' 31.5%.

4. 자유화(liberalization)의 진전과 사회통제 강화

- 북한은 최근 1년 동안 주민유동성 증대와 정치의식 약화로 국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 자유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의 진전이 국가적 사회통제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제와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율적 활동과 의식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은 40.9%→50.0%로 9.1% 포인트 상승,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 및 주민유동성의 증대와 함께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8%에 불과
 -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로 탈북 후 북한 소식을 들었다는 비율이 82.6%→74.0%로 감소
- 고난의 행군 시기 청년시절을 보낸 현재의 40대는 호의적 대남인식 및 비판적 정치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존 정치·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집단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 유년과 청소년 시기를 보낸 20대와 30대는 아직 비판적 정치의식이 약하여 젊은 세대가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대와 30대가 아직 비판적 의식이 약한 이유는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통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일 가능성, 혹은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 발표 4

주민의 통일 · 주변국 인식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통일인식

통일의 필요성

	2011	2012	2013	2014	2015
필요하다	95.2%	93.7%	93.2%	100%	97.9%
그저그렇다	3.8%	5.5%	6.0%	0.0%	1.4%
필요하지 않다	1.0%	0.8%	0.8%	0.0%	0.7%
전체(N)	104	127	133	149	146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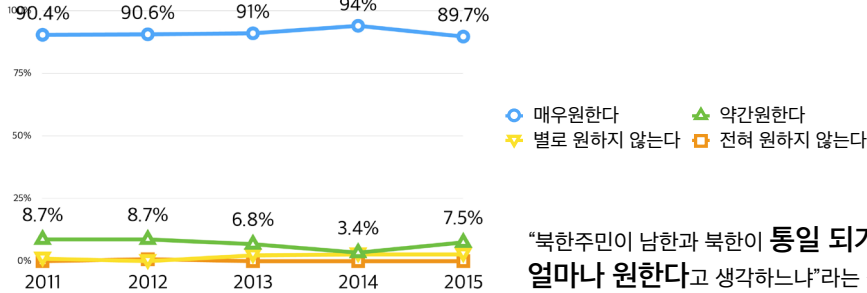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2013년 93.2%, 2014년 100%,
2015년 97.9%

	필요하다	그저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N)
20대이상	93.1%	5.9%	1.0%	100%(205)
30대이상	95.4%	3.9%	0.6%	100%(155)
40대이상	98.8%	0.6%	0.6%	100%(161)
50대이상	98.8%	1.2%	0.0%	100%(83)
60대이상	97.9%	2.1%	0.0%	100%(48)
전체(N)	96.2%(627)	3.2%(21)	0.7%(4)	100%(652)

5년 동안 전체 응답자를 연령대로
구분해 보았을 때

40,50대, 60대, 30대, 20대 순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북한주민 통일이지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원한다	99.0%	99.2%	97.7%	97.3%	97.3%	98.0%
	103	126	130	145	142	646
원하지 않는다	1.0%	0.8%	2.3%	2.7%	2.7%	2.0%
	1	1	3	4	4	1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4	127	133	149	146	659

북한주민들의 통일이지는 매우 높음

2014, 2015년의 응답자 97%이상은 통일을 원함

북한주민 통일이지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전체(N)
20대이상	84.9%	11.7%	3.4%	0.0%	100%(205)
30대이상	92.3%	5.8%	1.9%	0.0%	100%(155)
40대이상	95.0%	3.1%	1.2%	0.6%	100%(161)
50대이상	92.8%	7.2%			100%(83)
60대이상	100.0%				100%(48)
전체(N)	91.3%(595)	6.7%(44)	1.8%(12)	0.2%(1)	100%(652)

북한주민의 통일이지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였을 때
60대,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의지에서 20,30대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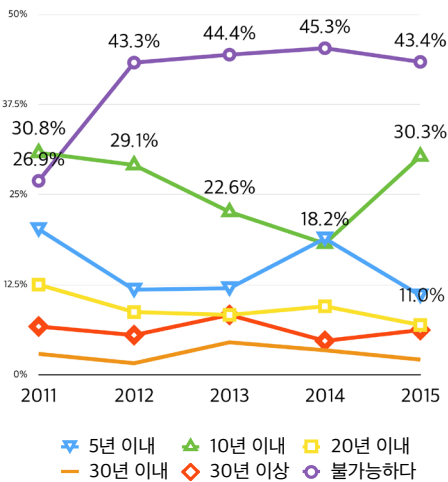
통일이유

	2014	N		2015	N
같은 민족이니까	24.1%	35	같은 민족이니까	28.2%	40
이산가족의 고통해결	7.6%	11	이산가족의 고통해결	3.5%	5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	11.7%	17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	8.5%	12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6%	69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9%	68
북한의 선진국 도약	8.3%	12	북한의 선진국 도약	9.9%	14
기타	0.7%	1	기타	2.1%	3
합계	100%	145	합계	100%	142

북한주민들 가운데 북한 거주 시 통일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질문에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가장 많은 47.9%,
“같은 민족이니까”가 28.2%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

실질적인 경제적 이유가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에 우선하는 특징

통일시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43.4%

즉 '통일을 원하는 것'과 '가능하다'라는 것'에는 현실적인 판단과 괴리가 존재

2015년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북한주민은 30.3%,
 5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11.0%

즉 10년 이내에는 통일에 관한 변화가 있을 것(41.3%)이라는 판단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통일 가능론이 북한주민들 안에 함께 존재

통일집단, 개인이익

통일 집단 이익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익이 될 것	100%	96.9%	99.2%	98%	99.3%
이익이 되지 않을 것	0.0%	3.1%	0.8%	2%	0.7%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통일 개인 이익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익이 될 것	95.2%	94.4%	95.5%	98.0%	97.9%
이익이 되지 않을 것	4.8%	5.5%	4.5%	2.0%	2.1%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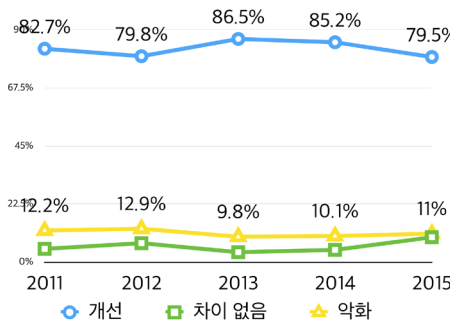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통일이 북한사회 전체에 가져올 이익(통일편익)**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97.9%로 **매우 높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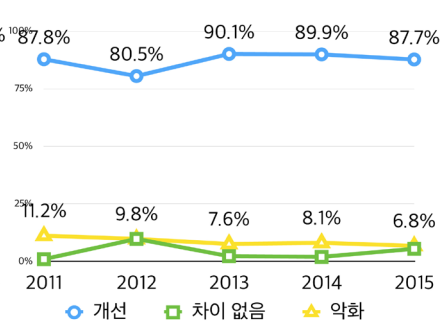
다만 통일이 북한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 존재

사회문제

1. 빈부격차



2. 실업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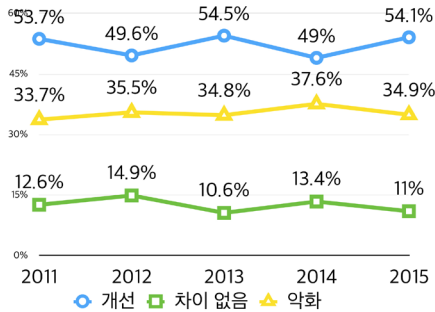


북한주민은 **통일이 되었을 때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이 2015년 79.5%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최근 2년 동안 기대감이 떨어 진 것은 주목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87.7%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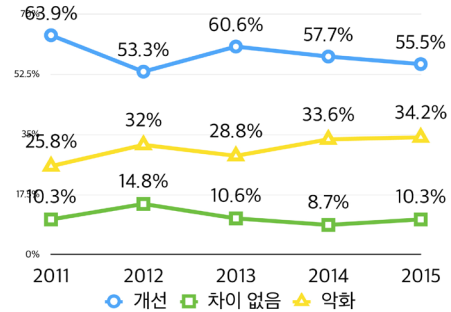
사회문제

3. 지역갈등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
 률은 54.1%로 작년 49.0%에 비해 높아짐
 But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 비해
 서는 전반적인 기대수준이 낮음
통일 후 남북간의 지역 갈등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

4. 이념갈등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55.5%로 절반수준
최근 2년동안 낮아지고 있음
 통일이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제도적 갈등
 및 규범체계의 차이로 부터 오는 혼선 예상

대북정책별 통일기여도

1. 인도적 대북지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도움이 된다	58.1%	44.4%	48.9%	55.0%	45.2%
다소 도움이 된다	10.5%	21.0%	15.8%	12.1%	24.0%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9%	19.4%	17.3%	20.1%	19.2%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15.3%	18.0%	12.8%	11.6%
합계(N)	105	124	133	149	146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느냐에 대한 질문에 69.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최근 5년 평균 67%)
 2011년 68.6%였던 응답률은 3차 핵실험이 있
 었던 2013년까지 2년 연속 하락 하였으나
 2014, 2015 각각 2.4%, 2.1% 상승

2. 사회문화교류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도움이 된다	52.5%	44.3%	46.2%	37.6%	50.7%
다소 도움이 된다	31.3%	36.1%	36.4%	43.6%	31.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1%	13.9%	13.6%	16.1%	11.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	5.7%	3.8%	2.7%	6.8%
합계(N)	99	122	132	149	146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 (평균 81.9%)

대북정책별 통일기여도

3. 경제협력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도움이 된다	54.5%	49.2%	55.6%	53.7%	49.3%
다소 도움이 된다	24.8%	33.3%	24.8%	28.9%	28.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9%	15.1%	12.8%	12.8%	13.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9%	2.4%	6.8%	4.7%	8.9%
합계(N)	101	126	133	149	146

4. 남북한간 회담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우 도움이 된다	52.0%	53.2%	57.9%	61.1%	51.4%
다소 도움이 된다	26.0%	26.6%	30.1%	25.5%	28.1%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0%	16.1%	6.8%	11.4%	10.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0%	4.0%	5.3%	2.0%	10.3%
합계(N)	100	124	133	149	146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1% (평균 응답 80.6%)

작년에 비해 올해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 하락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9.5% (평균 응답 82.7%)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 응답한 비율 2년 연속 증가 작년에 비해 7.1% 상승

통일방식

	2014	N	2015	N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2.0%	3	3.4%	5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21.6%	32	17.1%	25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4.7%	7	6.8%	10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39.9%	59	48.6%	71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31.8%	47	24.0%	35
합계	100%	148	100%	146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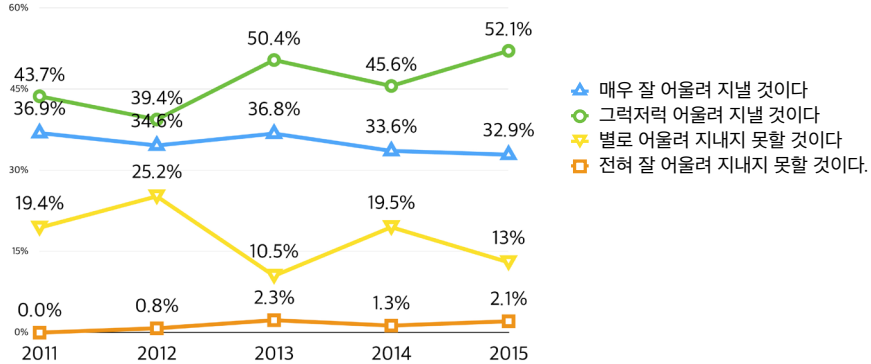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가 24.0%,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가 17.1% (이 선호도 순서는 작년과 동일)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3.4%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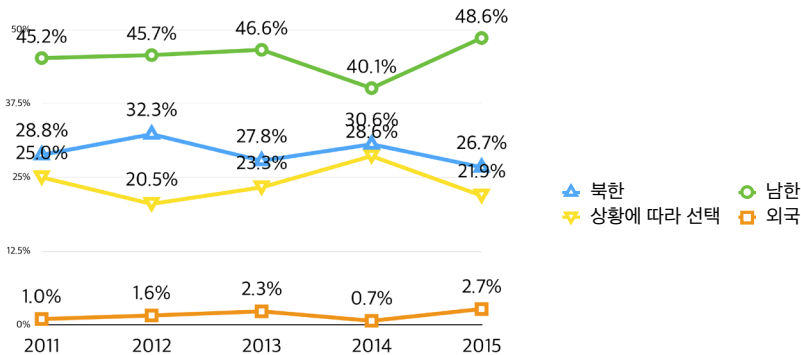
통일후 남북간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또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의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은 각각 34.8%, 46.5%

대체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 긍정보다 소극적 긍정의 응답이 더 많다는 것에 유의 할 필요

통일후 거주 희망 지역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의 48.6%가 남한, 26.7%가 북한을 선택함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라고 최종 거주지를 유보한 응답률 21.9%

남한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다시 증가하고 북한과 선택을 유보하는 응답이 다시 감소 추세

주변국인식

주변국 친밀감

	2012	2013	2014	2015	전체(N)
미국	1.6%	1.5%	1.4%	2.1%	1.6%(9)
일본	0.8%	0.0%	0.0%	0.7%	0.4(2)
남한	24.0%	13.0%	16.2%	22.9%	19.0%(104)
중국	70.4%	83.2%	79.7%	72.9%	76.6%(420)
러시아	3.2%	2.3%	2.7%	1.4%	2.4%(13)
전체(N)	100%(125)	100%(131)	100%(148)	100%(144)	100%(548)

북한주민의 중국 친밀감은 작년 비해 6.8% 감소한 반면 한국 친밀감은 6.7% 증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친중국 인식은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혈맹' 또는 '순망치한'(唇亡齒寒) 관계의 내재화된 결과로 추정 되지만 **최근 2년동안의 하락세**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

같은 기간 증가하는 북한주민의 우호적인 남한인식은 무역과 통신을 통한 정보 유입과 관련

평화위협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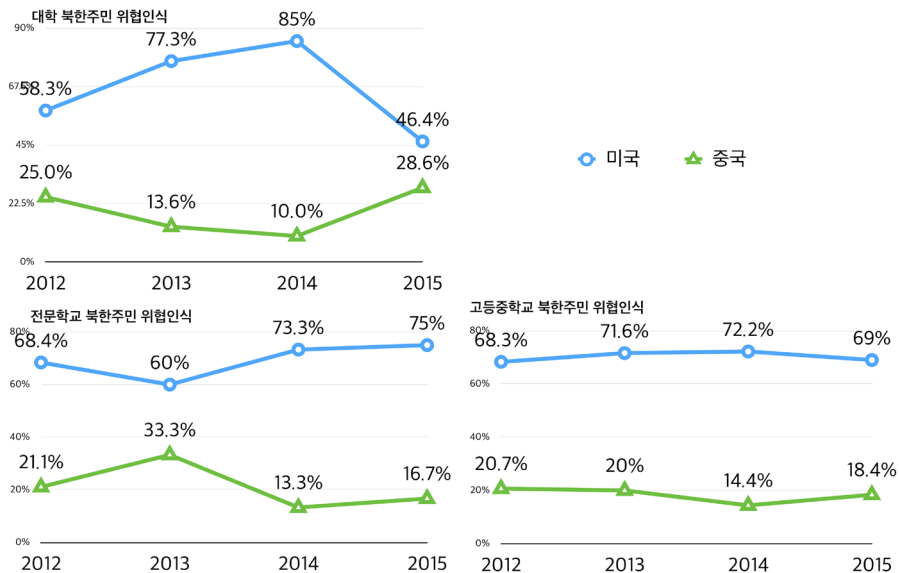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전체(N)
미국	66.1%	71.4%	73.8%	65.7%	69.4%(376)
일본	3.3%	6.8%	9.7%	12.6%	8.3%(45)
남한	8.3%	1.5%	2.1%	1.4%	3.1%(17)
중국	22.3%	20.3%	14.5%	19.6%	19.0%(103)
러시아	0.0%	0.0%	0.0%	0.7%	0.2%(1)
전체(N)	100%(121)	100%(133)	100%(147)	100%(145)	100.0%(542)

북한주민의 65.7%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봄

주목할 점은 지난 3년동안 위협의식이 증가해 왔던 미국은 2015년 8.1% 감소 추세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감소하였던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은 처음으로 5.1%증가

응답자의 북한주민 대다수는 한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지 않음

평화위협 국가



주변국 한반도 통일희망

		2012	2013	2014	2015	합계
미국	원함	31.7%	19.5%	21.1%	33.1%	26.3%
	원하지 않음	68.3%	80.5%	78.9%	66.9%	73.7%
		126	133	147	145	551
중국	원함	15.0%	16.7%	14.9%	14.4%	15.2%
	원하지 않음	85.0%	83.3%	85.1%	85.6%	84.8%
		127	132	148	146	469
일본	원함	10.5%	6.8%	6.8%	8.3%	8.0%
	원하지 않음	89.5%	93.2%	93.2%	91.7%	92.0%
		124	132	146	145	547
러시아	원함	32.5%	34.4%	30.1%	26.6%	30.8%
	원하지 않음	67.5%	65.6%	69.9%	73.4%	69.2%
		123	131	146	143	543

북한주민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33.1%로 작년 비해 증가
다른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는 가장 높은 수치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85.6%)이 미국(66.9%)보다 지배적

협조국가 필요

		2014	2015	합계
중국	퍼센트	52.8%	48.6%	50.7%
	빈도	76	68	144
미국	퍼센트	20.8%	17.1%	19.0%
	빈도	30	24	54
러시아	퍼센트	3.5%	5.7%	4.6%
	빈도	5	8	13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퍼센트	22.9%	28.6%	25.7%
	빈도	33	40	73
합계	퍼센트	100%	100%	100%
	빈도	144	140	284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
48.6%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절반에 가까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답한 것도 2014년 22.9%에서 28.6%로 증가

북중경협

	2014	2015	합계
바람직하다	56.4%	53.1%	54.8%
	84	77	161
우려스럽다	31.5%	34.5%	33.0%
	47	50	97
잘 모르겠다	12.1%	12.4%	12.2%
	18	18	36
합계	100%	100%	100%
	149	145	294

북중경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북중경협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

The End

2015 북한 주민의 통일 · 주변국 인식 (요약)

최규빈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

1. 통일인식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 주민 응답자는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93.2%, 2014년 100%, 2015년 97.9%
 - 2011~2015년 동안 전체 응답자를 연령대로 구분해 보았을 때 40,50대(98.8%), 60대(97.9%), 30대(95.4%), 20대(93.1%) 순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북한 주민 응답자의 ‘통일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 2015년의 응답자 97% 이상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앞서 결과에 비춰 봤을 때)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모든 사람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음
 - 지난 5년 동안 북한 주민의 통일의지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였을 때 60대(100%), 40대(95%), 50대(92.8%), 30대(92.3%), 20대(84.9%) 순으로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의지에서 20,30대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임

- 2015년 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시 통일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질문에 “북한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가장 많은 47.9%가, “같은 민족이니까”가 28.2%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
 - 실질적인 경제적 이유가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에 우선하는 특징을 보임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 역시 43.4%에 이룸
 - 즉 ‘통일을 원하는 것’과 ‘가능하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판단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줌
 - 2015년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북한주민은 30.3%, 5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11.0%
 - 10년 이내에는 통일에 관한 변화가 있을 것(41.3%)이라는 판단이 가능
 -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통일 가능론이 북한 주민 안에 함께 존재함을 보여줌

- 대다수의 북한 주민 응답자는 통일이 북한사회 전체에 가져올 이익(통일편익)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
 -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응답은 “통일이 북한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과는 다른 양상이 존재
 -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7.9%로 매우 높은 비율
 - 하지만 통일 집단 이익에 호응하는 모든 사람이 개인 이익에도 동일하게 호응하지는 않음 즉 통일이 북한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

- 북한 주민 응답자는 통일 후 사회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북한 주민은 통일이 되었을 때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이 2015년 79.5%로 작년 85.2%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단 최근 2년 동안 기대감이 떨어진 것은 주목할 현상
 -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87.7%으로 높은 기대감을 보임
 -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54.1%로 작년 49.0%에 비해 높아짐
 - 하지만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기대 수준이 낮음 이는 통일 후 남북 간의 지역 갈등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냄
 -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55.5%로 절반 수준을 나타냄 특히 최근 2년 동안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제도적 갈등 및 남과 북 사람들의 내재화된 문화와 규범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

- 대북정책에서 “남북한 간 회담”,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순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쌀, 의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69.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최근 5년 평균 67%)
 - 2011년 68.6%였던 응답률은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까지 2년 연속 하락 하였으나 2014, 2015 각각 2.4%, 2.1% 상승
 -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 (평균 응답 81.9%)
 -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1% (평균 응답 80.6%)
 - 작년에 비해 올해 경제협력이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5% 하락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9.5% (평균 응답 82.7%)
 -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년 연속 증가함. 작년에 비해 7.1% 상승

- 북한 주민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는 남한의 현 체제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가 24%로 두 번째,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가 17.1% (이 선호도 순서는 2014년과 동일)로 세 번째로 나타남
 -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3.4%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

-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또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의 5년간 평균 응답률은 각각 34.8%, 46.5%
 - 반면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또는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5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각각 17.3%, 1.4%로 상대적으로 낮음
 - 대체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적극적 긍정보다 소극적 긍정의 응답이 더 많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

- 북한 주민 응답자의 약 절반은 통일 후 남한 지역에 거주하기로 희망함
 - 북한 주민에게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의 48.6%가 남한, 26.7%가 북한을 선택함
 -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라고 최종 거주지를 유보한 응답률 21.9%에 이름
 - 남한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다시 증가하고 북한과 선택을 유보하는 응답이 다시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은 주목할 사항

2. 주변국 인식

- 북한 주민 응답자는 주변국 가운데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친밀감을 나타냄
 - 올해 북한 주민의 중국 친밀감은 작년 비해 6.8% 감소한 반면 한국 친밀감은 6.7% 증가
 -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한 친중국 인식은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혈맹’ 또는 ‘순망치한’(唇亡齒寒) 관계가 내재화된 결과로 추정되지만 최근 2년 동안의 하락세는 주의 깊게 살펴할 것
 - 같은 기간 증가하는 북한 주민의 우호적인 남한 인식은 무역과 통신을 통한 정보 유입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
- 북한 주민 응답자는 65.7%는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봄
 - 주목할 점은 지난 3년 동안 위협 의식이 증가해 왔던 미국은 2015년 8.1% 감소 추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감소하였던 중국에 대한 위협 의식은 처음으로 5.1% 증가
 - 북한 주민 대다수는 한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지 않음
 -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 응답률을 교육 수준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5년 46.4%로 전년도 85%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4년 10%에서 2015년 28.6%로 늘어남. 또한 이 두 국가 모두 지난 3년간 없었던 증감의 역전 현상이 2015년에 처음 일어났음

- 북한 주민 응답자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33.1%로 작년 비해 증가
 - 다른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는 가장 높은 수치
 - 중국의 경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85.6%)이 미국(66.9%)보다 지배적

-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으로 48.6%에 이룸
 - 작년 52.8%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절반에 가까움
 -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답한 것도 2014년 22.9%에서 2015년 28.6%로 증가

- 북중 경협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 바람직하다는 답변(53.1%)이 우려스럽다고 답변(34.5%)한 비율보다 우세
 - 북중 경협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